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경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의 문화경관 비교연구:

- 창차이촌(長財村)과 무이둥(慕義洞)을 대상으로 -

Comparison of Cultural Landscape in Traditional Korean-Chinese
Village and Han Village of Yanbian, China :
Case Study of Changcai Village and Moyidong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전공
강 용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의 문화경관 비교연구:

-창차이촌(長財村)과 무이둥(慕義洞)을 대상으로-

지도교수 김 성 균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전공

강 용

강용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의 문화경관 비교연구:

-창차이촌(長財村)과 무이둥(慕義洞)을 대상으로-

지도교수 : 김 성 군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전공
강 용

본 연구는 문화기술학적 연구방법(ethnographic study)을 채택하여 중국 조선족 마을과 한족마을의 문화경관을 해석하고 그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문화경관을 해석하면서 문화경관의 특징과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 내에 문화경관의 공통점, 차이점, 유사점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지 내에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도출하고 그 요소들에 대하여 해석하기 위하여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마을의 내부적인 관점에서 공간의 배치와 그 속의 의미체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역의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의 문화경관 해석하는데 있어 첫째,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역의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의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을 파악하고 마을경관을 해석한다. 둘째, 마을의 물리적인 경관 패턴 바탕으로 그 속의 의미체계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관련문헌연구, 연구방법론연구, 대상지 자료수집 및 분석 거쳐 최종적으로 마을문화경관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두 대상지 공간의 구성요소를 비교하여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역의 조선족 마을과 한족마을의 문화경관을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변지역은 중

국 내 조선족 최대 집단거주지인 동시에 한족문화와 공존하고 있는 다문화지역이며 모든 마을은 중국 사회문화 속에 존속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이 생성, 보존, 복원, 재개발 등 과정에서 중국 정부정책에 의해 관리 되어왔다. 이러한 존속관계는 마을의 현 모습 영향을 주었고 이는 중국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실증적 산물이다. 둘째, 두 가지 유형의 마을에서 유사한 용도로 쓰이는 공간이지만 조선족문화와 한족문화의 차이로 인해 공간의 구성 형태와 내부적인 의미가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부동한 공간구성이 이루어진 원인은 공간구성에 있어 베이스이론인 전통 풍수이론의 부동하기 때문이다.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마을의 풍수이론은 한반도의 전통적인 서민풍수이론이고 연변지역 한족마을의 풍수이론은 중국 대륙 내 각 지역의 풍수이론의 복합적인 형태로 형성 된 풍수이론이다. 이러한 풍수이론 결과적으로 마을의 공간구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지역의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의 문화경관 해석을 통하여 단순히 문화기술을 남기는 것 보다 이러한 연구가 향후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현대 과학문명과 함께 마을의 문화경관에 대한 보존, 복원, 개발 시 보다 정확한 계획안 설계에 있어서 기반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주요어 : 조선족마을, 한족마을, 창차이촌, 무이둥, 주거문화, 문화경관
학 번 : 2011-24106

목 차

국문초록	i
목 차	iii
표 목 차	v
그림목차	vi
I.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3
II. 관련문헌연구	4
2.1. 문화경관에 관한 연구	4
2.2. 연변지역 조선족에 관한 연구	6
2.3. 조선족마을에 관한 연구	11
2.4. 한족마을에 관한 연구	12
I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3.1. 연구의 범위	14
3.2. 연구의 대상지 선정	16
3.2.1. 창차이촌(長財村)	16
3.2.2. 무이둥(慕義洞)	18
3.3. 연구의 방법	19

IV. 중국 연변의 창차이촌(長財村)과 무이둥(慕義洞) 문화경관 비교	21
4.1. 마을 배치	21
4.2. ‘울안’ 및 ‘내원’ 공간	35
4.3. 주택건물의 내부공간	43
4.4. 마을 길	60
 V. 결 론	 65
 참고문헌	 69
부록	72
Abstract	73

표 목 차

<표 2-1> 19세기 이후 연변 조선족 이민 관련 연표	8
<표 2-2> 한일합방-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시기의 연변 관련 연표	9
<표 2-3> 연변지역 60년간 인구통계표. 1949-2009	10
<표 3-1> 본 연구의 질문매트릭스	19
<표 4-1> 조선족 올안 공간 분석표	35
<표 4-2> 한족 원내 공간 분석표	39
<표 4-3> 조선족 주택구조 분석표	43
<표 4-4> 한족 주택구조 분석표	52
<표 4-5> 조선족 마을길 분석표	60
<표 4-6> 한족 마을길 분석표	61

그 립 목 차

<그림 3-1>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위치도면	15
<그림 3-2> 길림성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위치도면	15
<그림 3-3> 연변조선족자치주 내 창차이촌과 무이둥의 위치도면	17
<그림 3-4> 용정시 창차이촌 주변 현황도	17
<그림 3-5> 연길시 무이둥 주변 현황도	18
<그림 3-6> 연구과정 카테고리	20
<그림 4-1> 풍수이론에서 주장하는 ‘명당’	22
<그림 4-2> 창차이촌 마을배치 분석도	22
<그림 4-3> 산봉우리를 향한 주택들의 다양한 방향을 알려주는 분석도	23
<그림 4-4> 부동한 산봉우리를 향해 있는 마을주택배치의 배치	24
<그림 4-5> 마을주택건물 앞에서 본 정면경관	24
<그림 4-6> 마을주택건물 앞에서 본 정면경관	25
<그림 4-7> 조선족마을 창차이촌 주택 분포 패턴도	27
<그림 4-8> 풍수이론을 바탕으로 형성 된 무이둥의 마을입지 분석도	28
<그림 4-9> ‘음양오행’론에서 산에 대한 구분 지표	29
<그림 4-10> 무이둥 주변의 ‘금형산’	29
<그림 4-11> 무이둥 마을 토지이용도	30
<그림 4-12> 한족마을 내 주택들의 일치한 방향 향해있다	31
<그림 4-13> 한족마을 주택배치 방향선정과정 분석도	32
<그림 4-14> 주택배치 유형 A	32
<그림 4-15> 주택배치 유형 B	32
<그림 4-16> 한족가정 주택 분포 패턴도	34
<그림 4-17> 조선족마을 공간과 공간간의 의미체계 관계 분석도	36
<그림 4-18> 조선족마을 마당	37
<그림 4-19> 조선족마을 울안 공간 평면도	37
<그림 4-20> 과수원과 농지가 함께 있는 조선족 마을집	38
<그림 4-21> 과수원과 농지가 함께 있는 울안 평면도	38
<그림 4-22> 한족마을 무이둥 내 현관문을 통해 보이는 전원공간	39
<그림 4-23> 한족마을 내원공간 평면도	40
<그림 4-24> 한족마을 내 정원공간과 모든 공간과의 의미체계 관계 분석도 ·	41
<그림 4-25> 겨울이면 주택 앞에 농지에 설치된 커다란 비닐하우스	41
<그림 4-26> 주택건물 옆에 붙어 있는 창고	42
<그림 4-27> ‘통칸형’ 주택구조 평면도	44

그 립 목 차

<그림 4-28> ‘통칸형’ 주택구조	44
<그림 4-29> ‘분칸형’ 주택구조 평면도	45
<그림 4-30> ‘분칸형’ 주택구조	45
<그림 4-31> 정주간 공간 평면도	45
<그림 4-32> 조선족 마을주택 내 ‘바닥’공간	47
<그림 4-33> 널판자를 댄 ‘부스칸’공간과 ‘가매목’ 공간	48
<그림 4-34> 칸막이가 없는 ‘웃방’ 평면도	49
<그림 4-35> 칸막이가 있는 日형 ‘웃방’ 평면도	49
<그림 4-36> 田형 ‘웃방’ 평면도	50
<그림 4-37> 조선족 주택 내 창고 평면도	51
<그림 4-38> 창고	51
<그림 4-39> ‘대칭사상’이 반영된 중국 사합원 구조도	52
<그림 4-40> ‘구(口)자(字) 대칭형’ 평면도	53
<그림 4-41> ‘일(日)자(字) 대칭형’ 평면도	54
<그림 4-42> ‘목(目)형’주택 평면도	54
<그림 4-43> ‘당(堂)옥(屋)’공간	56
<그림 4-44> 무이둥‘서(西)옥(屋)’공간	57
<그림 4-45> 무이둥‘동(東)옥(屋)’공간	57
<그림 4-46> 무이둥‘대(大)옥(屋)’공간	59
<그림 4-47> 무이둥‘소(小)옥(屋)’공간	59
<그림 4-48> 장재촌 마을길 평면도	60
<그림 4-49> 모의동 마을길 평면도	61
<그림 4-50> 울안공간에 있는 장물이 길의 경관형태에 영향을 주는 사진	62
<그림 4-51> 조선족 마을길은 주변의 자연적인 식생으로 구성 된 경관	63
<그림 4-52> 한족 마을길은 건물외벽과 인위적으로 식생으로 구성 된 경관	63
<그림 4-53> 한족마을 길거리에서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사진	64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하나의 문화를 가진 사회집단이 다른 문화를 만나 새로운 주거공간을 구성할 때 과연 그 주거공간은 어떤 형태로 구성 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그 마을의 문화정체성과 마을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마을 주거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조경학 및 지리학, 건축학, 민족학 등에서 주로 진행해 왔다. 본 연구는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¹⁾지역에서 조선족마을인 ‘창차이촌’과 한족마을인 ‘무이둥’에 관한 문화경관 비교연구이다.

‘연변’이라는 명칭은 ‘국경지대에 위치하여 있다’는 뜻에서 온 것이다. 연변은 중국 동북3성²⁾ 중 길림성에 소속되어 있으며 동북3성 지역은 19세기 말경부터 조선인이 이주와 정착이 이루어진 곳이고 이들을 ‘조선족’이라고 불렀다. 함경도와 인접해 있는 연변지역은 1952년 주민의 62%이상이 조선족으로 형성 된 중국 내 조선족 최대 집단거주지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소수민족 관련 정부정책에 의해 1952년 9월 3일에 이곳은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승격되었다.

현재 중국 연변지역은 한반도 전통문화의 한 세기 넘는 정착과정에서 기존의 거시적인 환경은 조선족문화로 인해 변화가 생겼고 고유의 한반도 전통문화 또한 중국 사회문화로 인해 변화가 생겼다. 새롭게 형성 된 이러한 마을주거환경은 한반도 전통주거문화가 새로운 생태계환경과 ‘중국사회’라는 다른 문화와의 적응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변화라고 보여 진다. 이는 한반도 문화가 중국에서의 전파 및 변화를 설명하는 실증적 도구이다. 현재 연변지역은 조선족문화와 한족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지역이며 또한 이는 중국사회의 시대적 변화도 반영하고 있다.

1992년 중국사회가 완전한 시장경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연변지역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 되었고 ‘이민모촌현상³⁾’도 발생하여 조선족문화가 결국 다른 문화와 동화되기 시작하였다. 연변지역의 ‘이민모촌 현상’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다 높은 경제적 창출을 위해 조선조인구가 중국 내 대도시

1)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 : 연변(延邊) 또는 연변지역(延邊地域) 이라고 부른다.

2) 동북3성은 흑룡강성(黑龍江省), 료녕성(遼寧省), 길림성(吉林省)을 포괄한 지역이다.

3) ‘이민모촌현상’(移民母村現象)이란 “그곳으로부터 상당수의 사람들이 상당한 기한에 걸쳐 이주를 진행하였고 현재에도 이주를 계속하고 있는 마을을 의미한다.”(진달, 1938)

로 이주하거나 해외로 근로하러 떠난 반면 한족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지역인 연변지역은 도시 내 조선족주거문화는 한족주거문화로 급격히 동화되고 있다. 마을문화 또한 동화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존에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동화현상이 급격히 변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족마을에서 젊은이가 날로 줄어들어 현재 마을에는 대부분 노인과 어린이만 남아 있다. 반면 그 빈자리에 새로 이주해 온 한족가정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으며 마을의 재건축, 마을홍보 등과 같은 마을소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마을의 대부분 농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조선족마을은 조선족주거문화의 보존, 복원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고유의 전통조선족마을에서 한족주거문화의 비중을 많아져서 조선족마을의 문화경관이 점차 파괴되고 있다.

조선족마을의 문화경관에 대한 보존, 복원 과정에서 조선족인구가 꼭 많아야 된다는 설정은 무의미 하지만, 조선족마을 문화경관의 보존, 복원 관련연구가 미약하고 이론자료, 지표자료가 부족한 현황 때문에 위탁하여 보존, 복원을 진행하기 힘든 현황이다. 또한 지금까지 조경학 관련 자료가 미약하여 마을주거공간의 보존, 복원과정에서 대부분 주택건물 위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변지역의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의 주거문화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향후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의 주거문화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과 복원을 위해 마을주거공간의 문화경관에 초점을 두고 중국 연변지역 내 조선족마을인 창차이촌과 한족마을인 무이둥의 문화경관 비교연구를 하였다.

1.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국 길림성 연변지역 내 조선족마을인 창차이촌(長財村)과 한족마을인 무이둥(慕義洞)의 문화경관 비교연구이다. 본 연구는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마을문화를 기술하였으며 문화기술지를 바탕으로 마을의 문화경관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변지역은 조선족 마을주거문화와 한족 마을주거문화가 공존하는 중국 내 보기 드문 특수한 경관이다. 이러한 독특한 공간에 대한 문화경관을 해석함으로써 조선족문화와 한족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주거공간의 공간형태를 이해하려고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창차이촌과 무이둥을 대상으로 마을의 물리적인 공간구조 및 형성과정에 존재하는 내적인 의미체계를 연구의 초점으로 두고 연구하려고 한다. 연구과정에서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물리적 환경을 분석하고 공간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의 조선족마을 관련 연구를 통해 한반도 전통주거문화가 중국 연변지역에서의 전파 및 변화를 이해하려고 한다. 또한 한족 마을주거문화가 소수민족문화와 공존하면서 변화 된 실태를 이해하려고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연변지역의 조경학 관련 자료가 미약한 시점에서 향후 마을경관을 다루는 조경학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며 연변지역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의 문화경관 연구로써 주거문화의 보존, 복원 관련 계획 및 설계를 돕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지역의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의 문화경관 해석을 통하여 단순히 문화기술을 남기는 것 보다 이러한 연구가 향후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현대 과학문명과 함께 마을의 문화경관에 대한 보존, 복원, 개발 시 보다 정확한 계획안 설계에 있어서 기반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II. 관련문헌연구

2.1 문화경관에 관한 연구

문화경관은 자연경관과 다르게 경관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체계는 한 문화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형성된 것이며 문화경관은 한 지역을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유네스코(UNESCO)는 2002년에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으로 정의하였다(문지영, 2012).

문화경관에 대한 연구는 연구주체에 따라 과거의 지나간 역사에 대해 정확한 정체성 규명해줄 수 있다. 누정⁴⁾은 선조들이 막연히 자연을 사랑해서 자연 속에 지어 놓고 자연을 감상하는 집이 아니다. 자연과 시적인 매개를 통해 적극적이면서도 창조적 공간이며 하나의 정원이면서 공원이다.(김성균, 2011) 누정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탄소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지속 가능한 공간이다. 누정은 세계 어느 곳에도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독특한 조경 문화이다.(김성균, 2011)

또한 문화경관에 대한 연구는 현재 알고 싶은 지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연구에 맞는 접근방법 중 하나이다. 문화경관은 넓은 의미로서 어떤 경관에서 인간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간섭과 이에 대한 자연의 반응이 균형을 이룬 부분의 경관요소만을 문화로 인식하기도 한다(이창석 외, 2001). 인류의 의미체계 형성은 공간, 사물, 행동, 활동, 사건, 시간, 행위자, 목적, 감정 등 요소에서 발생 되고, 의미를 부여 받은 공간, 사물, 행동, 활동, 사건, 시간, 행위자, 목적, 감정 모두 문화경관이 된다. 인류는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히 의미만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나 차수가 누적 되고, 개인이 아니 집단규모로 형성되었을 때 의미체계에 따라 주변 환경을 개변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강해진다.

여러 사람이 같은 사물을 볼 때에도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체계에 의해 각자 의미를 부여한다. 겉보기에는 이로 인해 사물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 인

4) ‘누정원(樓亭苑)’은 누정(樓亭)과 정자원을 합친 말로써 ‘누정을 중심으로 주변의 경관이 시각적, 관념적으로 일체화된 외부공간’을 말한다. (김성균, 2011)

식에 혼란을 가져다주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각자 부여한 의미를 통해 그러한 의미를 부여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미체계를 알게 된다. 그들의 의미체계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다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인류가 도시 개발사업 시에 계획입안 결정자와 개발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사공 되었으나, 당사자인 그 속에 사는 주민이 참가할 길이 마땅치 않았다(이희봉, 1988). 설계자가 지역주민을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속해 있는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공간의 형태가 설계되어야 한다(천현진, 2012). 그러므로 이제는 주변 환경을 개변 시킬 때 그 공간의 소유자에 관련된 공간, 사물, 행동, 활동, 사건, 시간, 행위자, 목적, 감정 등 요소에 존재하는 의미체계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요소를 존중하는 원칙에서 환경 개변을 시도해야만 불이익을 피하는 지름길로 갈 수 있다. 문화경관에 대한 연구는 이처럼 미래 개척에 있어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 인식을 기반으로 불이익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판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문화경관연구는 그 어디에서나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다.

2.2 연변지역 조선족 관련 연구

중국 내 조선족의 이주는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현상이다. 조선족 이민사는 실질적으로 19세기 후반 이후의 이민사를 의미한다. 표 2-과 같이 제1기 이민은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 한일합병이 있는 1910년까지의 이민시기로 구분하기로 한다. 제1기 이민은 자연이주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특히 두만강 북부인 연변지역의 이민은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함경도지방 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인 장재촌은 마찬가지로 초기이민지역에 해당한다(중국조선족이민실록,1992). 이시기 이민은 청나라의 봉금정책⁵⁾ 때문에 이민은 금지 되었고 극소수의 불법 이민이 진행되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국경지역의 인적 없는 땅 중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택하여 봄에 농사를 지어 놓고 가을에 다시 와서 수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후 이민실변⁶⁾ 정책을 실시하여 자유롭게 압록강상류와 두만강을 산곡과 하천을 따라 동북지역에 이민하게 되었다. 초기 조선족 이민의 주요한 특징은 자연이주가 주류를 이루었고, 이들이 동북지역에 최초의 수전(水田)을 개발하였다. 당시 수전은 한전(旱田)보다 수익이 훨씬 높았으며 한족지주들은 조선인 농민들을 모집하여 수전개발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중국조선족이민실록,1992).

제2기 이민은 1910년 이후 1931년까지의 이민시기로 구분하기로 한다. 이시기에 나라의 경제적 곤경을 피하려는 많은 조선인들과 소수의 항일에 뜻을 둔 조선인들의 유입으로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한 조선족은 1920년에 459,000명, 1930년 607,000명으로 계속 늘어났다(이채석,1988). 1910년부터의 연변지역의 동북지방 및 연변지구의 역사는 표 2-2와 같다. 제2기 조선족 이민의 주요한 특징은 조선이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국권이 일제에 탈취된 상황에서 이민이 더욱 많아지고 집단화 했다는 점이다.

제3기 이민은 1935년 이후 1945년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1931년 일본은 9.18사변을 일으켜 동북지방을 점령하고, 1932년 일본의 식민지국가인 만주국을 수립했다. 이후 일본은 만주에서의 영향력확대를 도모하고 조선의 농지를 수탈하기 위해 조선족 150만명을 중국으로 이주시키는 15년 계획(이채석,1988)을 수립하는 등 집단이민, 개척이민정책을 실시하였다. 1936년 만주조선개발회사를 세워 집단이주는

5) 봉금정책 : 장백산(백두산) 이북 1,000여리에 유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 (1677).

6) 이민실변 ; 청나라는 짜르러시아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현실적에서, 어차피 지키기 힘든 봉금제도를 폐기하고 이민의 유입을 허락하는 정책 (1881).

늘어났고 1938년 동북지역의 조선인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 1941년에는 130만명에 이르렀다(이채석,1988). 제3기 조선족 이민의 주요한 특징은 일제의 정책에 의한 집단적으로 모집된 성격이었다.

1945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게 되었고, 중국 해방 이후의 이민은 1945년 이후부터 1990년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1945년 8.15 해방 직후 소련군과 동북항일군이 연변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 조선족들은 정체적 혼란과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이채석,1988). 당시 동북지역 조선족 인구의 통계는 불확실하지만 상당수의 조선족이 고국으로 귀환하고 나머지 약140만명의 조선족이 머물렀다. 연변지역의 조선족 인구는 1944년의 64만명에서 1950년의 53만명으로 줄어들었다(이채석,1988). 1952년 9월 3일 연변지역이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성립 되었고, 1945년 이후에도 조선족 이주는 소규모로 계속 되었다. 1990년 통계에 의하면 중국 전체에서 약 2,041,758명의 조선족이 있는데, 그중 길림성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834,127명에 달하였고 주민의 40.9%가 조선족이었다. 표2-3과 같이 연변지역의 한족 인구는 1957년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연변지역의 조선족 이민사는 계속 되고 있다. 중국의 문화혁명⁷⁾이 끝나고 1979년 개혁개방이 시작하였다. 과거의 농업에 종사하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조선족농촌사회에도 농민의 비농업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92년 이후 중국사회는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고 한중수교가 이루어졌다. 이 단계에서 조선족농민들의 도시진출과 출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비농업화의 속도가 빨라졌다. 연길시 통계국 2009년 조선족 인구통계표 표2-3과 같이 동북3성 조선족농민들의 대량 이동으로 인해 중국 청도시, 북경시, 상해시, 심수시 등 중국 도시와 한국, 미국, 일본 등 지역에서의 조선족의 도시공동체, 해외공동체가 새롭게 형성 되었다. 그 중 중국 산둥성 청도시 현재 중국에서 조선족 최대 도시집거지로 되었고, 한국은 조선족 해외 최대 집거지로 되었다. 조선족 관련문헌연구는 이처럼 대부분 조선족이민사를 주요하게 다루었으며 문화경관 관련연구는 미약하다.

7) 문화혁명. 1966-1976.

표 2-1 19세기 이후 연변 조선족 이민 관련 연표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 1984).

년도	동북지방 및 연변지구의 이민 관련 역사	관련 역사
190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청조 협박하여 간도협약체결 통정에 일본총사령관을 세움, 조선족,일제의 령사재판권반대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10년 한일합병
1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족지식인 사립학교 세워 반일 애국교육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토지감점, 조선족 탄압
1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변지지구(안도·돈화제외), 총인구 264.982명 그중 조선족 20여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11년 신해혁명, 청조몰락,
19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변조선족반일시위, 유혈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부, 봉계군벌 득세, 친일매국정책
1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변의 논면적 6,350쌍에 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일무력투쟁 계속, 일제 경신년대 토벌강행
192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림성장공서, 조선인취체 및 이주 금지훈련반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21년 일본군 철수 군벌정부, 조선족 박해
1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공산당만주성임시위원회 성립 일본동양척식회사 토지약탈 12만무(1/10쌍, 즉 12,000쌍) 	
19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9.18사변’일으켜 연변 강점 각지에 관동군 수비대, 헌병대 설치 	
19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통정책에 의한 집단부락 형성 조선어사용금지, 창씨개명 등 탄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장항일투쟁과 일본의 소탕전 계속
194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련, 일본에 선전포고, 동북 진군 동북항일련군, 소련군과 연합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8.15’ 일제 무조건 항복
19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9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1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변조선족자치주 승격 	
1966-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혁명기간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수교 	

표 2-2 한일합방-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시기의 연변 관련 연표(“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1984).

년도	동북지방 및 연변지구의 역사	관련역사
1910 1911.10 1913.2 1914.6 1916 1920 1929.2 192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림동남로병비도태공서를 길림성동남로관찰서로 고침, 연길·화룡·훈춘·왕청·돈화·묵룡·녕안·돈녕 등 8개 현 관할 • 동남로관찰서를 연길도윤공서로 고침 • 연훈진수사 설치 • 연길진수사로 고침 • 연길도윤공사 취소, 연길교섭서 설치 연길·화룡·훈춘·왕청·4개 현 관할 • 연길교섭서 취소, 연길시정준비처 및 4개 현 행정감독공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합방 • 신해혁명, 청조몰락, 중화민국설립
1931 19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동북부 강점 • 길림성림시정부 연길시정준비처 및 4개 현의 행정감독공서 취소, 연결주재 길림성특파행정전원림시판사처 설치 	
1932 1933.8 1934.12 1937 1938 1940 1943 1943.10 1944 1945.8 19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림성연변행정독찰전원공서로 고침 • ‘괴뢰’간도성 설치, 연길에 소재 연길·훈춘·화룡·왕청·안도 5개 현을 관할, 현 아래 구·촌·보갑제를 실시 • 현 관할하 진에 가,농촌을 둠 • 왕청현공서를 백초구에서, 대두촌을 왕청가로 개칭 • 화룡현공서를 대립자에서 삼도구로 옮기고, 삼도구를 화룡가로 개칭 • 연길현 관할하의 연길가를 간도사로 고치고, 간도성의 직할시로 만듦 • 한시기 총성기구 설치, 간도성을 동만총성(묵단강 소재)의 관할에 둠 • 총성기구 취소, 간도성 회복 • 소련군, 동북항일연군 연변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주국 건국(일본의 괴뢰 정권) • 일제할복 •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표 2-3 연변지역 60년간 인구통계표. 1949-2009 (연길시 통계국, 2009).

년도	연변 주(州) 총인구	조선족 인구	인구 비율(%)
1949	835,278	529,258	63.4
1952	854,431	529,801	62.0
1957	984,728	581,885	59.1
1965	1,356,489	635,064	46.8
1975	1,683,137	710,901	42.2
1988	2,003,043	815,212	40.7
1990	2,041,758	834,127	40.9
2000	2,184,502	842,135	38.6
2009	2,179,000	800,000	36.7

2.3 조선족마을에 관한 연구

조선왕조시기 중국과 국경지역의 무역 왕래 관계는 1883년 조선왕조의 대표와 <봉천여조선변민교이장정>⁸⁾, <길림조선상민무이장정>⁹⁾이 체결되어 중·조 양국의 전통적인 상호내왕 관계가 진일보 개선되었다(고영일, 1988). 1885년 청조는 두만강 이북 길이 700리, 너비 40-50리 되는 지역을 조선인전문개간구역으로 정하고 조선족의 대량 이주를 장려하고 개간을 고무하기에 이르렀다(이채진, 1988).

현재 중국 조선족의 문화는 한반도 한국문화와 더불어 중국 넓이 알려져 있다. “조선족은 노래와 춤을 즐기고, 열정이 넘치는 친절한 민족이다, 그들은 준로에 유¹⁰⁾한 아름다운 품행을 가진 민족이고, 문화지식을 추구하는 중국의 훌륭한 소수민족이다.”(연변문서자료14집, 2010). 1992년 중한수교 이후 많은 한국학자들과 중국학자들이 공동으로 건축학, 건축공학, 사회학 시각에서 연변지역 조선족마을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중국의 한인동포문화는 여러 타민족문화가 교차되는 환경에서 우리의 문족문화를 지키려는 한민족으로서 주체적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여권대 조선족문화는 한족문화와 중국문화의 양면성을 지닌 근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김준봉, 2007). 온돌구조는 전통주택의 난방방식으로 고대문헌¹¹⁾의 내용이다. 온돌구조의 방에 익숙한 서민계층의 주거문화는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의 주택에 여전히 드러나고 있으며 좌식생활하고 있다(김준봉, 2007). 중국 한인동포의 전통만가는 동족끼리 공동체사회를 형성하여 집단 분포되어 집단 거주해왔기 때문에 그 뿌리에는 한민족의 주생활 양식의 바탕이 남아 있다(백석중, 2007). 자본주의적 주거형식을 “개체적 생산”이라 본다면 중국 조선족 주거형식은 제도하의 “계층성 집단 주거형식으로 제공되는 생산”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김수인, 1999). 2009년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 조선족인구의 43%가 되는 800,000명이 살고 있는 중국 최대 집거지 이고, 농업을 종사하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였고, 80년대 이후 비농업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김화선, 2011).

역사와 문화 측면 외 건축학, 건축공학 문화인류학 등의 다양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 현재 조선족민가 관련연구를 진행하데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마을의 건축구조 전용 용어와 구조도 등 향후 관련연구에서 유용하게 쓰

8) <봉천여조선변민교이장정><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

9) <길림조선상민무이장정><吉林朝鮮商民貿易章程>

10) 尊老愛幼,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한다.

11) 고려중기 이인로의 동문선,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최자의 보한집, 성현의 용제총화 등 문서에서 출현.

이고 있다. 이러한 참고자료들은 현재 조선족문화 동화현상, “이민모촌”현상의 영향 때문에 지역문화 정체성을 잃어가는 연변지역에게 고유문화를 지키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경관 관련연구는 미약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문화경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4 한족마을에 관한 연구

현재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에서 민족 모어 표현의 차이 때문에 같은 사물을 논함에 있어서 다양한 용어가 나온다. 옛 마을 또는 옛 문화가 유지되어 있는 마을에 대한 호칭에 있어서 조선족은 “전통마을”이라는 부르고 한족은 “고촌락”¹²⁾이라고 부른다. 중국 한족 고촌락의 문화경관은 중국 전통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철학적 사고방식의 틀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화합을 이루고 통일된 주거공간을 만들기를 추구하였다.

고촌락에 관한 연구 중 현대사회에 접어들며 최초로 남겨진 자료 중 1953년 간 현 회남향에 남겨진 20여곳의 명나라 민간주택과 사당에 대한 자세한 조사기록이 있다. 이후 1957년에는 장충일 선생이 <휘주명나라주택>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이는 전체적인 구조, 평면 구성, 외관구조 및 디테일한 장식 등 방면을 자세히 기록을 하였다.

80년대는 왕문정, 손종양 두분이 <문화,환경,인간의 건축의 본질- 완난민가건축>, 이 책에서는 민가의 형체, 기술과 공예를 자세히 다뤘다; 허홍우의 <휘주민가형태발전연구>이는 이현 시디촌의 형성, 발전 및 변천과정에서 건물의 양식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90년대는 유시립<고촌락: 화합의 인주환경>은 경관지리학의 각도에서 고촌락의 인문경관과 자연경관을 논술했다. 1992년부터 동남대학은 완난 민가의 대규모의 측량 및 매핑을 진행하여 고촌락 관련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남겼다. 고촌락 공간에 관한 연구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각 나라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연구를 진행했었다. 중국의 고촌락 핑촌(宏村), 서체(西遞)등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어있다. 이러한 고촌락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의 충격을 받고 있다.

옛 문화의 보존하려면 선행연구처럼 자료모집과 표면상의 분석연구 외, 공간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즉 그 공간에 생활하고 있는 현지 주민

12) 古村落, 예전에 앉은 마을.

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그 공간을 분석하고 공간의 의미와 문화적 패턴을 도출하여 더 세세한 정체성 규명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사 패턴을 보면 연구주제가 다양함을 상실하고 있다. 이미 알려져 있는 명승지를 대상으로만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고촌락 문화가 소수민족지역, 변경지역과 같은 이질문화를 만났을 때의 변화 등 다양한 연구는 아직 미약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형성 역사와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이지 심도 깊은 공간의 내적인 의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고촌락의 구조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의 문화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또한 국경지역에 있는 한족마을에 관한 연구는 미약한 실태이고 특히 같은 지역의 두 문화경관에 대한 비교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의 국경지역인 연변지역 내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 문화경관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연구대상지에 머물면서 관찰 및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 문헌연구를 통해 일차적인 지식을 확보하고 대상지 답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1월 연변지역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고 2012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31개월 동안 아홉 차례 되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인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족마을인 창차이촌과 한족마을인 무이둥 내 모든 공간에 대해 문화인류학적 접근방법을 토대로 두 가지 마을의 문화경관을 비교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 동북3성 내 길림성 동북에 위치하여 있다. 그림3-1, 3-2와 같이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위도: 북위 42.0-44.5도, 경도: 127.5-131.3도 이고, 중국, 러시아, 조선 3국 국경지대에 위치한 총면적은 42,700km²로서 길림성 총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연길, 도문, 용정, 돈화, 훈춘 5개 시와 화룡, 왕청, 안도 3개 현으로 구성 된다. 장백산구에 위치하여 54.8%가 산지이고,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기후 특징은 중온대 습윤계풍 기후, 여름 무덥고 비 많고 강수량은 500-700mm 된다. 겨울이 길고 춥고 결빙기는 11월~3월 이며 풍향은 겨울에는 편서풍이고 여름에는 편동풍 이다. 연변지역은 1952년 9월 3일에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성립하여 공식 명칭이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승격되었다.



그림 3-1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위치도면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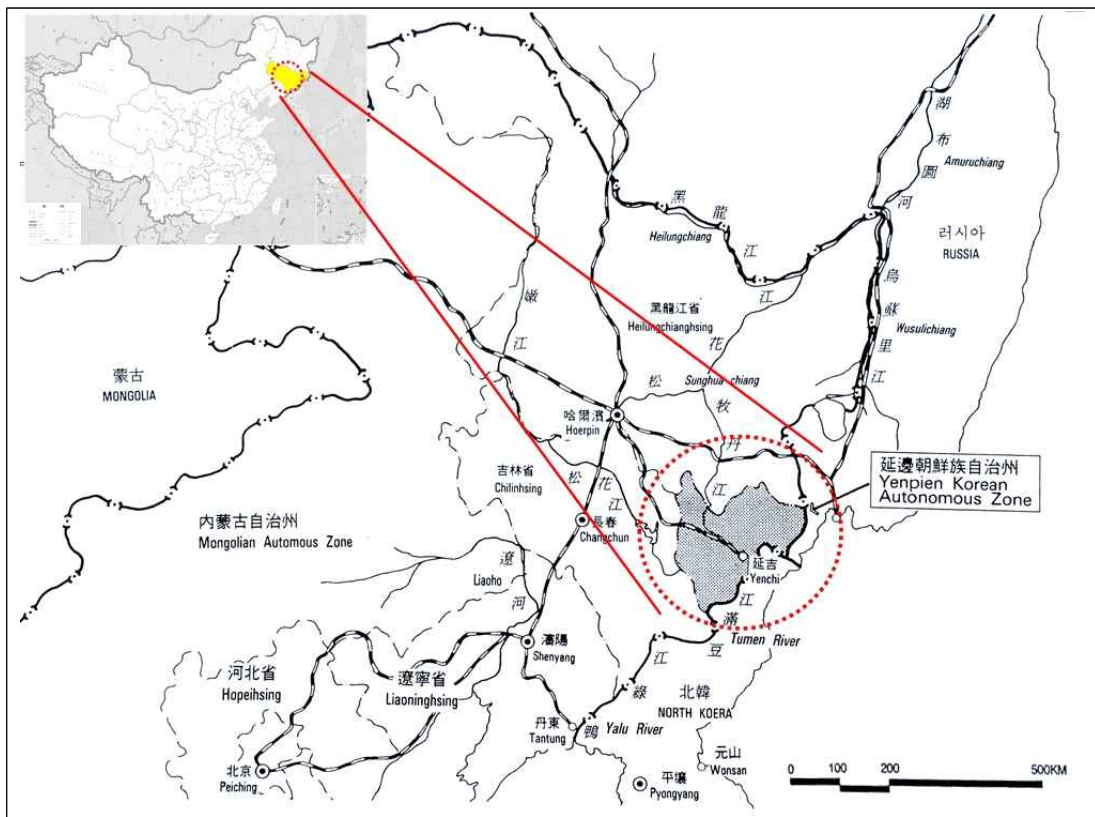


그림 3-2 길림성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위치도면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 1984).

3.2 연구 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 중 조선족마을은 창차이촌으로 선정하였고 한족마을은 무이등을 선정하였다. 문화혁명 이후 고유의 조선족마을모습을 가춘 마을은 적었고 그중 창차이촌은 고유의 조선족주거문화가 자장 많이 남아 있는 마을이기에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연변지역의 한족마을은 최초에는 주요하게 연길시를 중심으로 형성 되었고 지금은 그 주변 시와 현과 같은 지역에 확장되어있다. 그중 무이등은 연길시 내 현재에도 마을의 주민 대다수가 한족으로 구성 된 마을이고 한족의 주거관련 유물이 출토 된 마을로서 한족마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3.2.1 창차이촌(長財村)

창차이촌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에 속하여 있고 용정시는 자치주의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 북한과 두만강으로 경계를 이룬다. 그림3-3, 3-4와 같이 용정시는 현재 3,916km²의 면적에 287,0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중 창재촌 인구는 약 200명이고 대부분 조선족이다. 동해바다와 가깝고 중위도 대륙동안에 위치하고 사진로 둘러싸인 형구로서 근해성, 산지형을 겸한 중온대 습윤계절풍기후를 형성하고 있다.‘육도하(六道河)’가 만들어낸 기다란 계곡으로 연결되어 있다. 계곡의 중앙부를 강과 간선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농업이 성하고 교통이 편리하다. 창차이촌은 마을 동북쪽에는‘뒷산(后山)’, 동남쪽에는 ‘오봉산(五峰山)’, 서쪽에는 ‘큰봉’이 위치하여 있고, 마을 앞의‘육도하(六道河)’사이의 완만한 경사지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의 앞쪽 외곽과 강 사이는 약 100m 떨어져 있다. 마을의 뒤쪽에는 폭 20~30m의 완경사의 밭이 있고 그다음으로 경사가 비교적 급한 뒷산의 경사지와 연접해 있다. 해발은 360~370m의 표고에 위치한다. 마을의 주택지는 가로가 약 600m, 세로는 가장 넓은 곳은 약 220m의 길고 좌측이 뽕죽하게 모이는 모양으로 형성 되어 있다. 마을 내 전체면적은 12.22ha 이고, 이중 주택지는 전체면적의 74.9%인 91,465m²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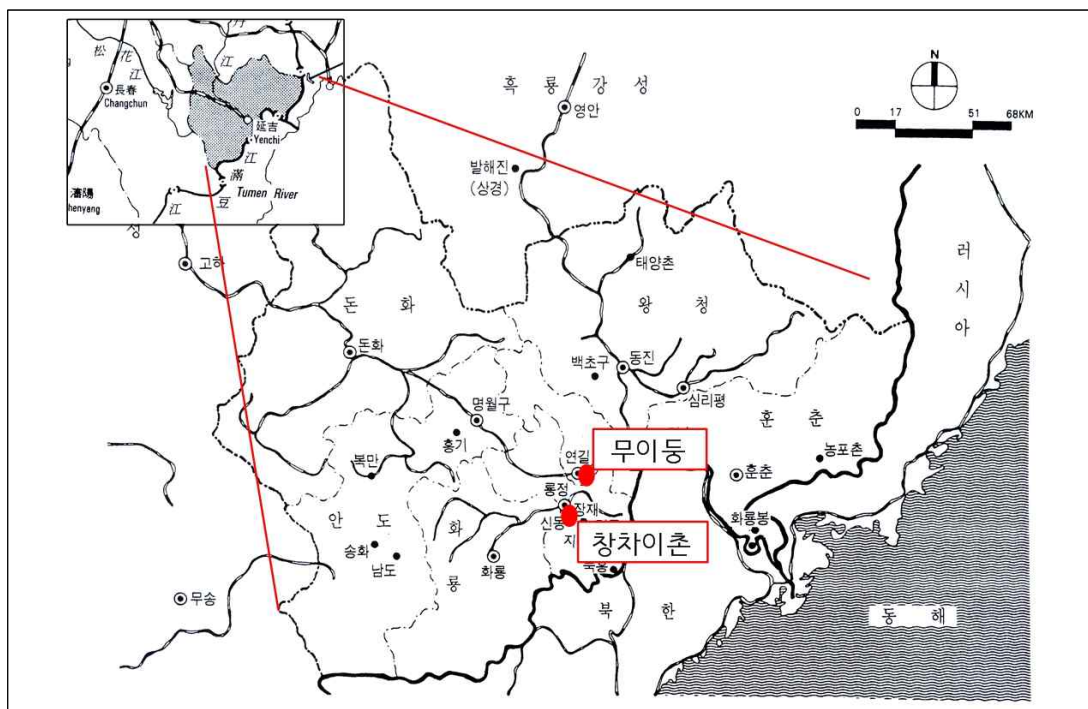


그림 3-3 연변조선족자치주 내 창하이촌과 무이둥의 위치도면(“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1984).



그림 3-4 용정시 창차이촌 주변 현황도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1984).

3.2.2 무이동(慕義洞)

모이동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남부 ‘장백향(長白鄉)’에 내에 소속되어 있다. 3-3과 같이 장백향이라는 이름은 장백산을 연상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총 면적은 99.04㎡이고, 인구13,664명이다. 그중 모이동은 1900년에 형성 되었고 한족과 조선족이 함께 개항하였다. 현재 인구는 90명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대부분 한족이다. 기후는 산지형을 겸한 중온대 습윤계절풍기후를 형성하고 있다. 모의동은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라는 하천의 하류 남쪽 평평한 흙모래 지역인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의 앞에는 ‘대연대봉(大烟台峰)’이라는 산이 있다. 3-5과 같다. 동남쪽은 지형이 낮고 서남쪽은 지형이 평평하다. 수원이 충족하여 밭과 과수원이 많다. 근처에 소규모 한족소학교 5개가 있고 학생이 약 1,100명 정도 된다. 무이동은 연변지역의 중심인 연길시 근교에 위치하여 있다. 연길시는 중국 내 조선족의 최대 집단거주지이고, 가장 발전된 도시이다. 1952년 연변지역이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로 성립되면서 중국 내 넓이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현재 중국내 ‘친환경도시’, ‘깨끗한 도시’를 홍보테마로 삼고 있다. 연길시는 조선족 최대 집거지인 반면 연변지역으로 이주해오는 한족들이 첫 번째 선호하는 지역이기도하다. 한족 인구는 1957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모이동은 1900년에 형성 되었고 한족과 조선족이 함께 개항하였다. 모의동은 한족마을 중 하나였고 대부분 주민이 한족이고 마을형성 된 이후 더 많은 한족 이주민으로 인해 개발 및 발전을 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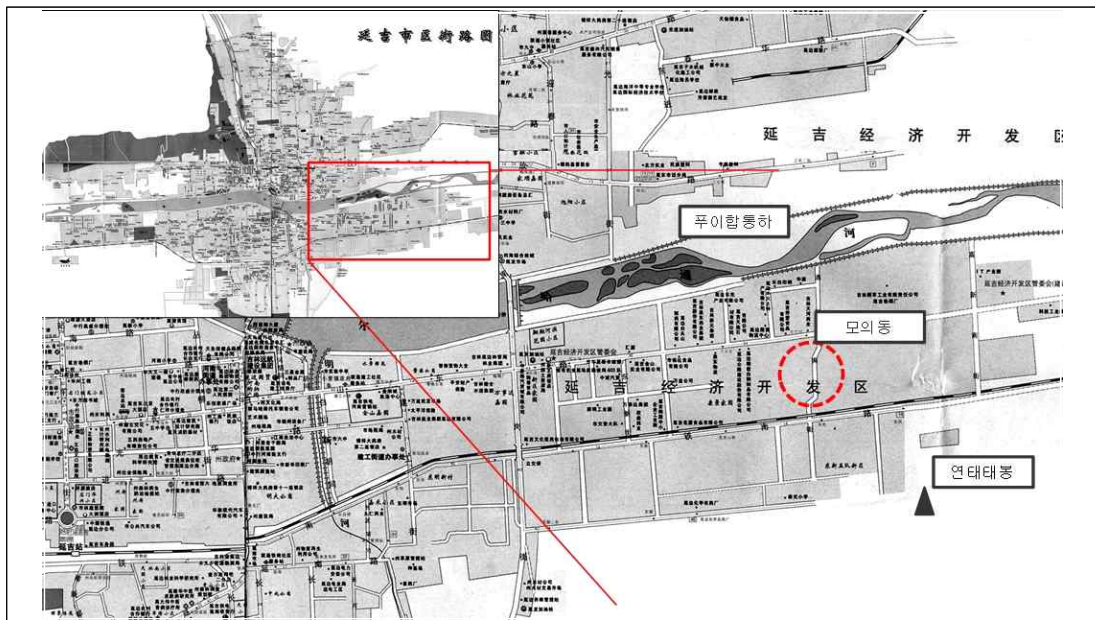


그림 3-5 연길시 무이동 주변 현황도 (연변문서자료14집, 2010).

3.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변지역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의 문화경관을 이해하기 위하여 마을의 공간형태와 그 속에 내재 되어 있는 문화적 의미체계를 연구의 초점으로 두고 연구하였다. 표3-1과 같이 연구과정에서 인터뷰질문 단계에서는 객관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James P. spradley가 제시한 참여관찰 연구방법의 81개의 서술적 질문매트릭스를 이용하였고 본 연구의 연구내용에 맞추어 공간과 사물을 중심으로 공간, 사건, 시간, 행위자, 행위, 사물, 목적, 감정을 항목으로 재구성 된 질문매트릭스를 토대로 질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인문지리학(人文地理學)연구방법¹³⁾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는 장소와 지역 속에서 각 지역의 다양성을 찾고 지역의 특성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3-1 본 연구의 질문매트릭스

	주거공간	주거공간 내 사 물
공 간	모든 '장소'를 자세히 묘사할 수 있는가?	사물에 의해 공간이 구성되는 모든 방식은?1
사 건	어디에서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사물이 사건에 관련되는 모든 방식은?
시 간	어디에서 시간 구획이 발생하는가?	사물이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방식은?
행위자	어디에서 행위자들은 자리를 잡는가?	사물이 행위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모든 방식은?
행 위	어디에서 행위들이 일어나는가?	사물이 사용과 행위에 관련되는 모든 방식은?
사 물	어디에 시설물이 위치하는가?	모든 '사물'들을 자세히 묘사할 수 있는가?
목 적	어디에서 목적들이 추구되고 성취되는가?	사물이 목적추구에 어떻게 활용되는가?
감 정	어디에서 다양한 감정상태가 이루어지는가?	사물이 감정을 유발하는 모든 방식은?

13) 인문지리학(人文地理學)연구방법: 사람마다 서로 다른 특성이 있듯이 장소와 지역도 특성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바로 그 지역의 특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것을 지역성(地域性)이라고 하며 지역성은 지역의 다양성(多樣性)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문지리학의 목표는 지역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으며, 사람-지역(땅)-사회-공간 관계의 세 축을 인문지리학의 핵심 개념을 초점으로 연구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17479&cid=44412&categoryId=44412>)

본 연구의 연구 과정은 3-6과 같이 먼저 준비된 질문매트릭스에 따라 마을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을 주거공간을 관찰내용을 기록하였다. 기록된 문화기술지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의 문화경관의 문화적 패턴을 파악하고 공간형태를 구성하는 주요요소를 도출해 내고, 각 부분간의 관계패턴을 파악하고 문화경관공간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지에 대하여 질문과 관찰을 통해 나온 문화기술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거쳐 공간의 패턴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포함용어인 X와 그들의 총괄용어인 Y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마을주거공간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는 Y이다. Y는 본 논문의 ‘중국 연변의 창차이촌(長財村)과 무이둥(慕義洞) 문화경관 비교’파트의 주요한 연구주제이고 Y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Y속에 있는 수많은 X를 구조주의 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인류학적 접근방법을 거쳐 현지인 내부자의 관점에서 문화경관 해석을 진행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비교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유사한 위계 맞추어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 간의 공동점, 유사점, 차이점에 대하여 문화경관 해석을 진행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자료만 이용하였고 평면도자료는 전부 실제로 존재한 주거공간을 모델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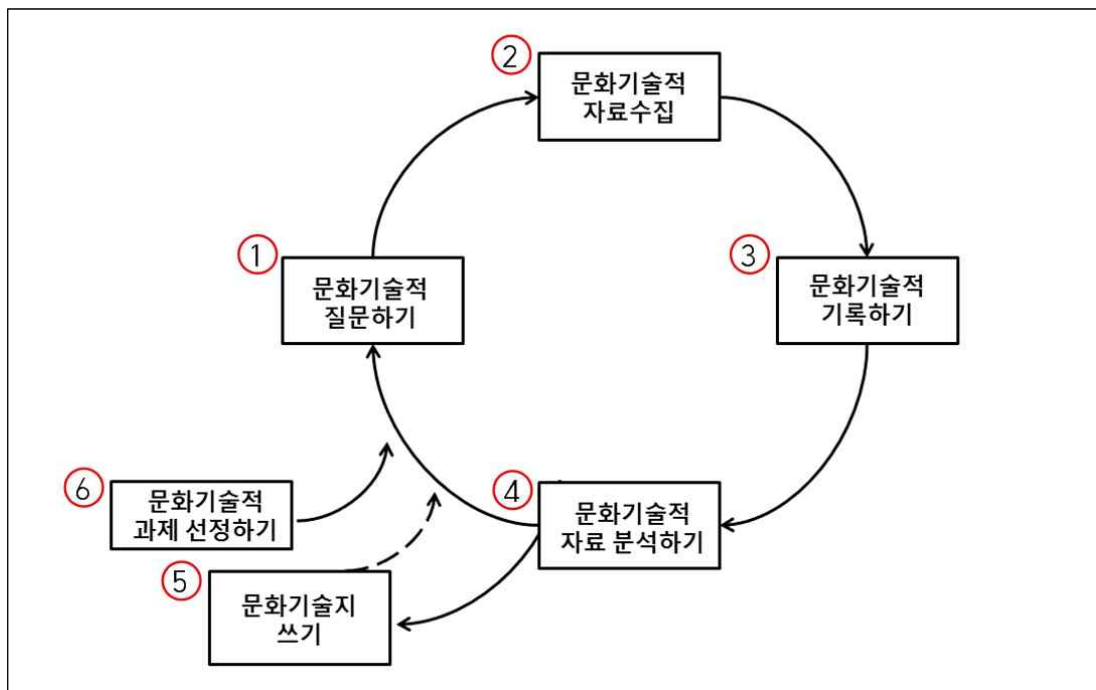


그림 3-6 연구과정 카테고리 (James P. spradley 참여관찰연구방법,)

IV. 중국 연변의 창차이촌(長財村)과 무이등(慕義洞) 문화경관 비교

4.1 서 론

연변지역 마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마을사람, 마을이 위치하는 터, 건물, 그리고 이로부터 보이거나, 느껴지고, 연결되는 경(景)이다. 본 연구는 마을의 사람, 터, 건물, 경에 관한 문화경관연구를 진행하여 마을 공간을 심도 깊게 관찰 및 기록하고, 마을문화경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마을 공간 해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4.1 마을의 배치

마을의 면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마을주민이 가지고 있는 민족문화이다. 연변지역에서 기타 민족문화는 조선족문화와 한족문화에 의해 복합적으로 동화 되어있었다. 연변지역에서 지금까지 형성된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은 자기 고유문화를 지키는데 노력하고 있었고, 두 문화가 공존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극적인 동화현상도 나타났다. 또한 중국 사회문화 속 생존과정에서 정부정책 영향이 마을의 공간형태에도 반영 되어 있었다.

중국 연변지역 내 조선족마을, 한족마을을 포함한 모든 마을은 최초에는 중국 정부정책에 의해 마을의 입지범위가 정해져 있었고, 집집마다 창고 외에 주택건물을 하나씩만 지을 수 있다(연변문서자료 제14집, 2010). 지금은 지역문화 보존 및 복원과 시장경제 전환으로 인해 건물개수에 대한 한도가 늘어났다. 마을의 입지범위와 건물개수는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았고 마을 구체적인 위치와 마을배치 및 주택배치 등 세세한 부분에서는 민족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은 주거문화의 차이로 인한 마을경관의 차이가 있다.

리동춘(2013)씨에 따르면 창차이촌 마을배치에서는 동북 방향에 있는 뒷산을 조종산으로 정하고, 서남 방향에 있는 산을 앞산으로 두고 동남 방향에 있는 오봉산과 서쪽 있는 큰봉을 ‘좌청룡우백호’라는 개념을 가지고 마을을 보호해주는 수

호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림 4-1과 같이 이처럼 풍수이론은 한반도의 간용법 이론인 산의 맥(脈)을 살피고 산맥의 기복을 용(龍)에 비유하여 맥의 흐름을 조종산으로부터 혈장까지 살피는 방법과 같다. 정창복(81세)씨가 “집도 그렇고 울안도 그렇고 조선족마을의 풍수이론은 사실 한반도 서민들의 전통 풍수이론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그런 풍수생각을 가지고 마을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라고 하듯이 이러한 풍수이론은 마을의 공간구성에 영향으로 경관을 조성하였다. 풍수이론에 의한 전체적인 마을배치 현황은 그림4-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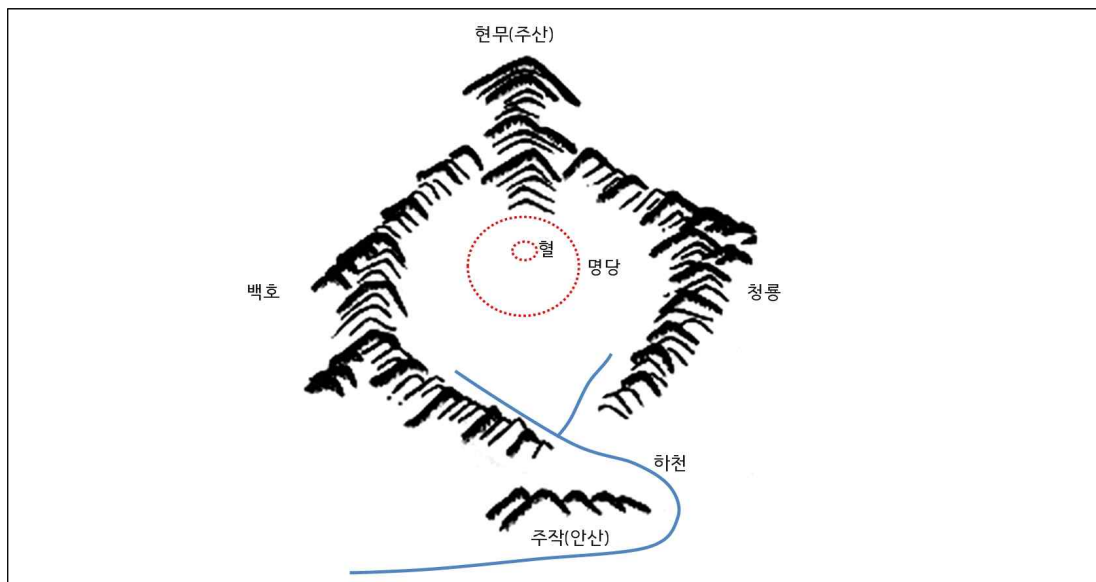


그림 4-1 풍수이론에서 주장하는 ‘명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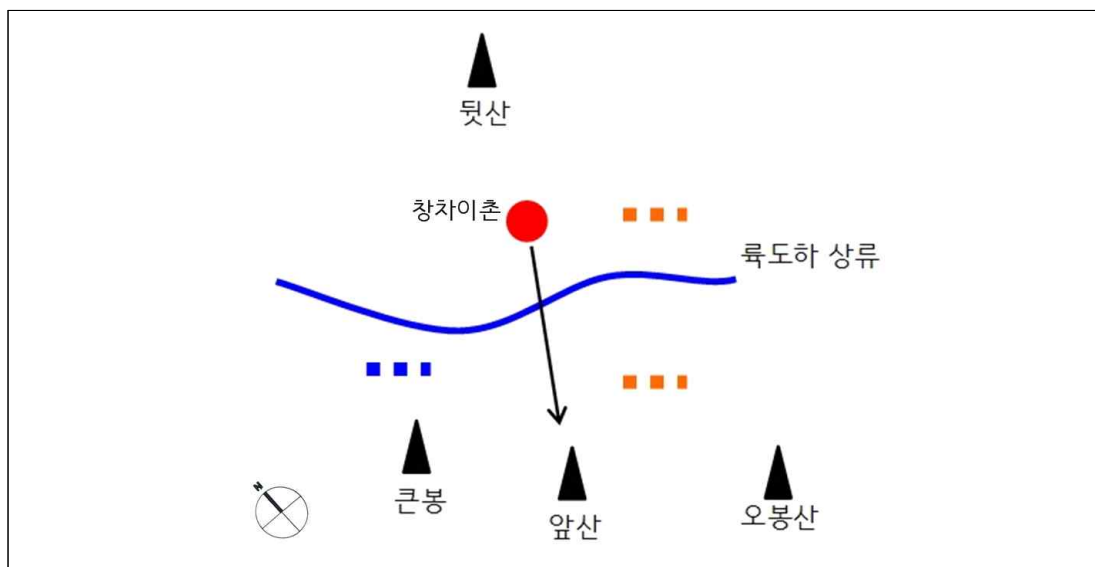


그림 4-2 창차이촌 마을배치 분석도

범례: ■ 대상지 ■ 하천 ■ 한전 ■ 수전 ▲ 산 → 마을이 향한 방향

리동춘(2013)씨에 따르면 창차이촌 마을입지와 농사터입지는 수호산의 기를 받는 개념과 하천수원과의 거리를 가만하여 하천의 상류에서 한정을 지었고 하류에서는 수전을 지었다. 이러한 이론은 한반도 풍수의 간용법, 장풍법, 득수법을 혼합하여 반영한 것이다. 그들은 마을 앞의 '육도하(六道河)'와 강 사이는 약100m 떨어져 있는 완만한 경사지에 마을 터를 잡았다. 마을의 뒤쪽에는 완경사의 밭이 있고 그다음으로 경사가 비교적 급한 뒷산의 경사지와 연결해 있다. 김동범(2012)씨에 따르면 이러한 풍수이론을 통해 배치된 창차이촌은 명당자리에 마을의 앉혔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창차이촌 마을 입지를 다른 곳에 정하였다면 건조한 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해 생명의 안전과 경제적 창출에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마을주민들이 인터뷰에서 얘기하였다.

정창복(2013)씨에 따르면 창차이촌은 조선족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풍수이론으로 마을의 입지선정이 끝나고 나서, 마을의 전체적인 방향 배치와 주택 방향 배치에 있어서 마을 앞에 위치하고 있는 산봉우리를 향하여 배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족마을과는 전혀 다른 마을경관이 조성되어 있다. 마을주민 전체가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택위치의 부동함에 따라 다소 다르다. 이러한 의미체계를 모르고 마을의 평면도로 볼 때 마을이 다소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 내적인 의미구조는 '산봉우리를 바라본다.'는 공동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림4-3, 4-4, 4-5, 4-6과 같이 이러한 풍수이론을 바탕으로 마을경관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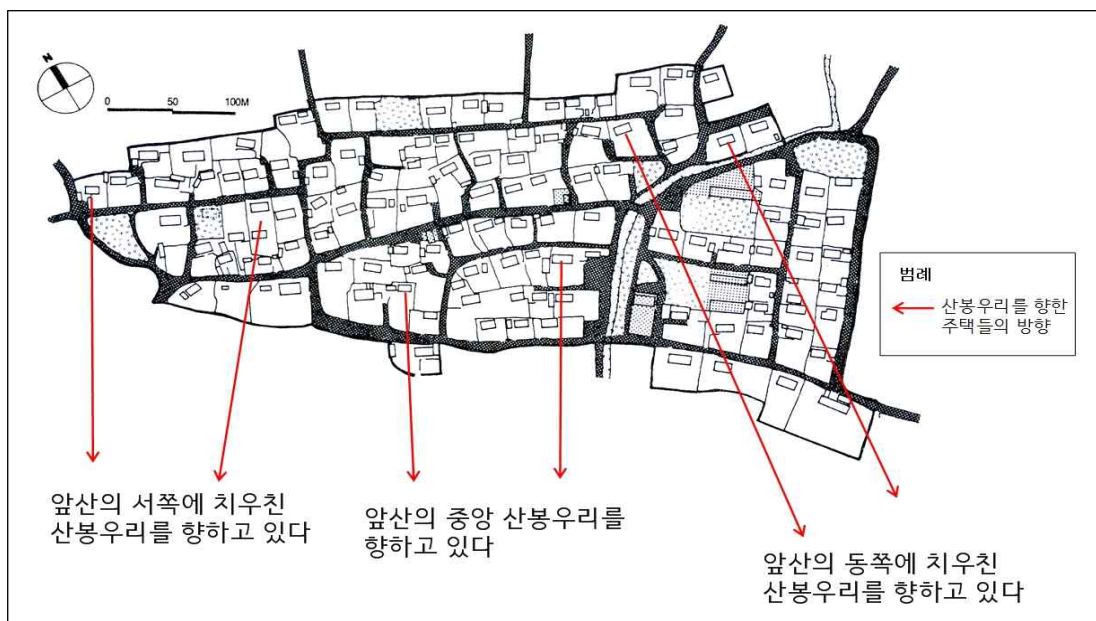


그림 4-3 산봉우리를 향한 주택들의 다양한 방향을 알려주는 분석도



그림 4-4 부동한 산봉우리를 향해 있는 마을주택배치의 배치 (2013.7).



그림 4-5 마을주택건물 앞에서 본 정면경관 (2013.7)



그림 4-6 마을주택건물 앞에서 본 정면경관 (2013.7)

박룡호(2013)씨에 따르면 조선족마을인 창차이촌은 함경북도와 인접한 지역으로 조선족 제1기 이주가 나타는 지역 중 하나였다. 이 지역의 조선족마을주민은 민족문화를 중요시하고 그걸 지키려는 의식과 노력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최초 이민들이 남겨놓은 마을형태와 한반도 고유 전통문화지식체계가 타 지역과 비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었다. 1933년 일제 ‘병통정책’으로 인한 창씨개명 때문에 마을 어르신 중 여성주민 이름이 영향을 크게 받아서 이름은 성씨 상관없이 대부분 숙자, 미자, 화자, 명자 등으로 되어 있었다. 창차이촌은 명동촌(明東村)일대의 한 마을이며, 조선족 마을형태가 가장 보존이 잘 되어있다. 류길선(55세)씨가 “1992년 이후 중국이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더 높은 경제적 창출을 위해 많은 조선족인구가 마을을 떠났다.”라고 하듯이 이로 인해 1992년 이후 마을의 개발과 발전 과정에서 주거문화의 보전과 복원이 어려움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한족문화와의 동화현상도 시작되었다.

리상룡(2013)씨에 따르면 조선족마을주민간의 호칭은 큰집¹⁴⁾, ○씨 네 집¹⁵⁾, ○○네 집¹⁶⁾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창복(2013)씨에 따르면 마을주민의 주민

14) 큰집: 마을 원로 이민가정, 6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는 집

15) ○씨 네 집: 지식 많고, 주택개건, 친목 도모에 등 마을 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

16) ○○네 집: 평범한 가정집

간의 관계 의미체계에서 ‘큰집’은 마을의 어른이고, 그들을 존경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또한 마을의 대, 소사에 참여하여 지식을 공유하는 존재이다. ‘○씨 네 집’은 마을의 가장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많은 지식 에너지자원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과의 심층 교류가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이다. 기타 마을주민들을 각 집에 가장의 이름을 빌어 ‘○○네 집’으로 부른다. 그림4-7과 같이 이러한 마을주민의 주민 간 관계의미체계는 마을의 공간형태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

창차이촌 마을주민 중 정착 시간이 긴 마을주민 다수가 옛 마을모습에 대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중 현재 60~80세 좌우 마을어르신들께서는 어렸을 때 부모님 그리고 마을주민들과 함께 했던 마을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박룡호(84세)씨가 “옛날에 마을에 집을 지을 때, 마을 어른들이 각자 좋은 집터를 먼저 하나 찾아서 그 주변을 개황하다 보니까 집들이 하나 둘씩 더 생기게 되었소, 후에 생긴 집들은 집주인들이 앤 처음에 지은 집이랑 같은 좋은 기를 받들려고 비슷한 각도를 맞춰서 집을 지었소.”라고 하듯이 창차이촌 형성 시 그때 마을주민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새롭게 모든 공간을 조성해야 했다. 그들 중 그나마 글을 알고 지식이 있는 조선족 이민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인 ‘한반도 서민 전통주거문화’를 베이스로 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마을조성 과정은 문서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기억으로 정리하여 고향모습을 하나 둘씩 재현시키는 방법으로 진행 되었다고 한다. 비록 정체성이 완전한 지식체계는 아니지만 고향모습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요소들을 주로 다루었다고 한다. 그중 한반도 서민 풍수이론이 주요한 요소였다. 이러한 풍수이론을 바탕으로 최초의 집터 선정을 하였고, 기타 주변인들은 처음 선정한 지역 주변에 풍수이론을 바탕으로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거형태는 지금도 진행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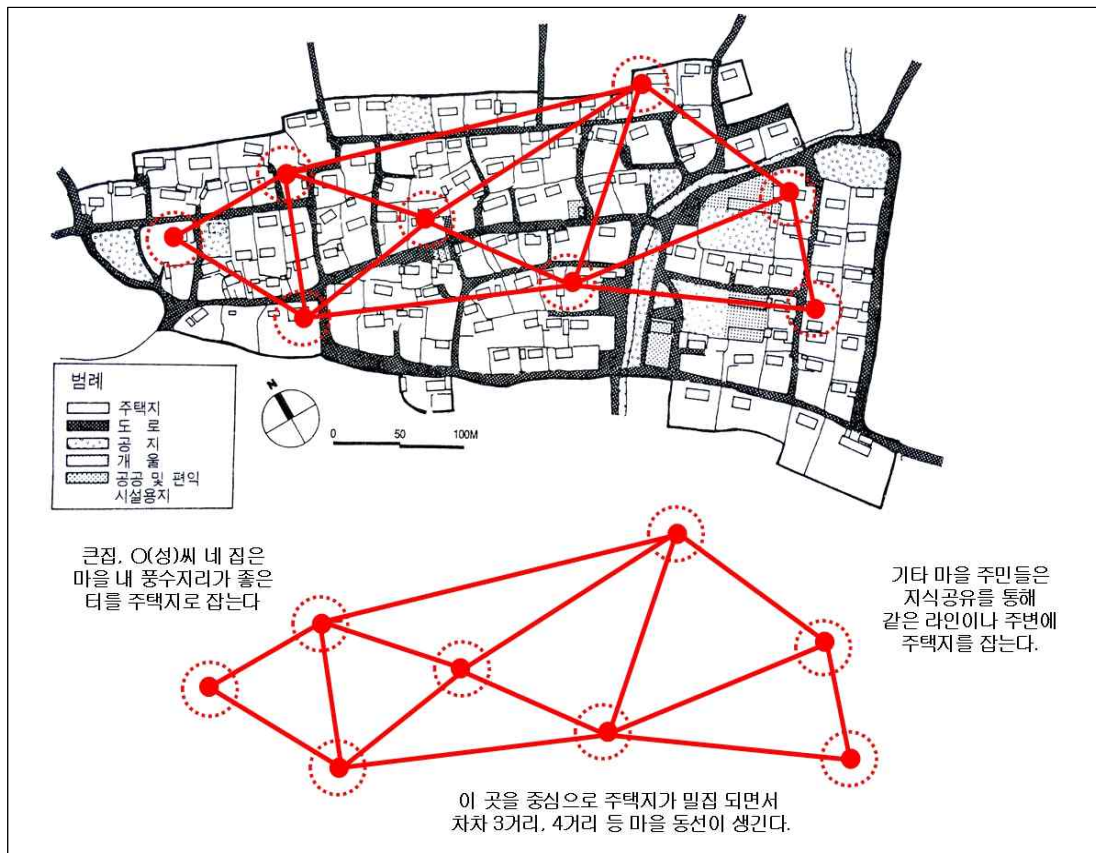


그림 4-7 조선족마을 창차이촌 주택 분포 패턴도

조선족마을주민간의 의미체계에 대한 문화경관분석을 통해 창차이촌 마을주민의 주민 간 관계의미체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마을주민은 ‘창차이촌’이라는 마을 공간을 구성하면서 창차이촌은 조선족마을이고, 이러한 조선족마을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마을의 조선족문화의 보존 및 복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일 상에서 지식공유를 통해 마을 개발 및 발전과 경제적 공익을 추구하려 한다. 셋째, 마을 내 같은 민족끼리 꼭 서로 돕고 희노애락(喜怒哀樂)을 공유하면서 자기 들의 마을문화를 지키려는 의지와 신념, 중국 내 민족 선입견을 버리고 서로 존중 하고 민폐를 후회시키고 서로 도우면서 마을 개발 및 발전과 농사를 포함한 공익 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감정 변화가 발생한다.

무이둥 왕쭈파(王茂發)씨는 75세이고 마을에서 제일 연세가 있는 풍수이론전문가이고 무이둥의 마을 건설 시 중요한 고문이다. 왕쭈파(2012)씨에 따르면 한족주민들의 풍수이론은 중국 내 여러 지역의 복합적인 구성 된 독특한 형태이다. 풍수지리의 개념은 중국에서 북방 한족사람보다는 남방 한족사람들이 더 신봉하며 왕조시기 중국에서 도시계획과 주택지 입지를 선정할 때 풍수지리이론 생성되고 그 이후 더 발전하여 ‘고대 도시제도’와‘대칭적 배치사상’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수이론이 반영이 되었다. 하지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문화혁명을 거쳐 풍수이론에 대한 신봉사상이 많이 사라졌다. 현재 풍수지리이론은 하나의‘옛 민족문화’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옛 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으며 그림 4-7과 같이 모의둥의 마을 형성에도 풍수지리 이론이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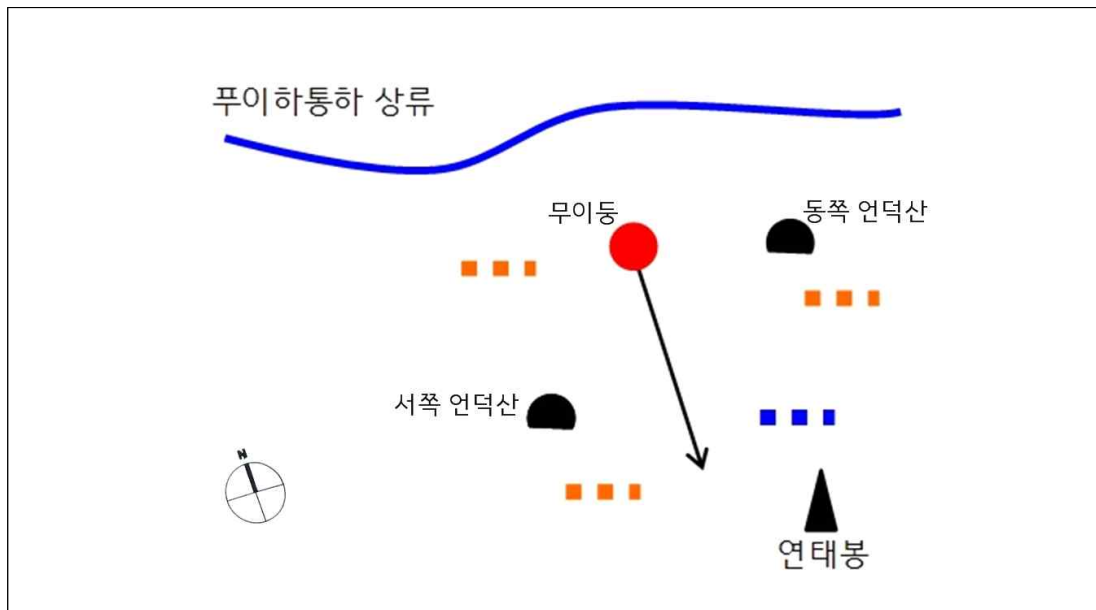


그림 4-8 풍수이론을 바탕으로 형성 된 무이둥의 마을입지 분석도

범례: ■ 대상지 ■ 하천 ■ 한전 ■ 과수원 ▲ 산 → 마을이 향한 방향

왕쭈파(王茂發)(2012)씨에 따르면 무이둥의 한족주민들의 풍수이론의 구성 요소는 중국 내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음양오행’론과 간용법, 득수법이 있다. 북방대륙의 기후는 언제나 건조하고 강한 북풍의 영향으로 흙먼지가 날린다. 자연피해를 피하려는 심정과 풍수이론의 ‘간용법’이론을 바탕으로 언덕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마을입지로 선정하였다.“천인합일”(天人合一)의 철학적 사고방식을 베이스로 득수법 이론에 맞추어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을 택하였으며 마을

내 연못도 만들었다. 그림4-9와 같이 ‘음양오행’이론으로 마을주변의 언덕산을 ‘금형산’으로 정의를 내렸고 마을주변에 ‘금’의 기운이 너무 많기에 오행이 불합리한 형태로 조성이 되었을 때 ‘상생상극’론 통해 인위적으로 재구성 하였다. 마을주민들은 음양기운의 평형을 이루기 위하여 삼각형과 근사한 형태로 각진 연못과 공터를 조성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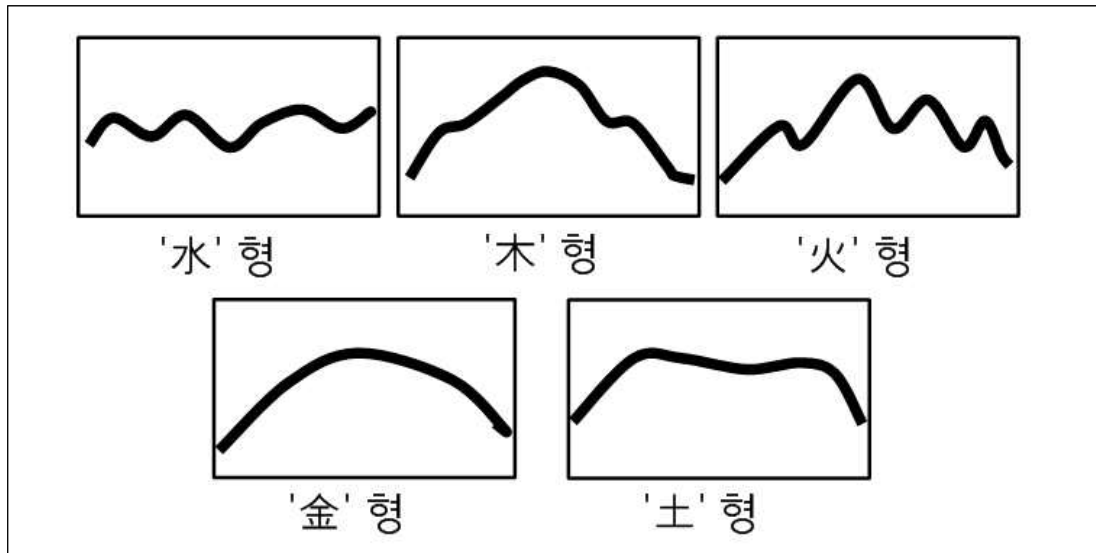


그림 4-9 ‘음양오행’ 론에서 산에 대한 구분 지표 ()



그림 4-10 무이동 주변의 ‘금형산’ (20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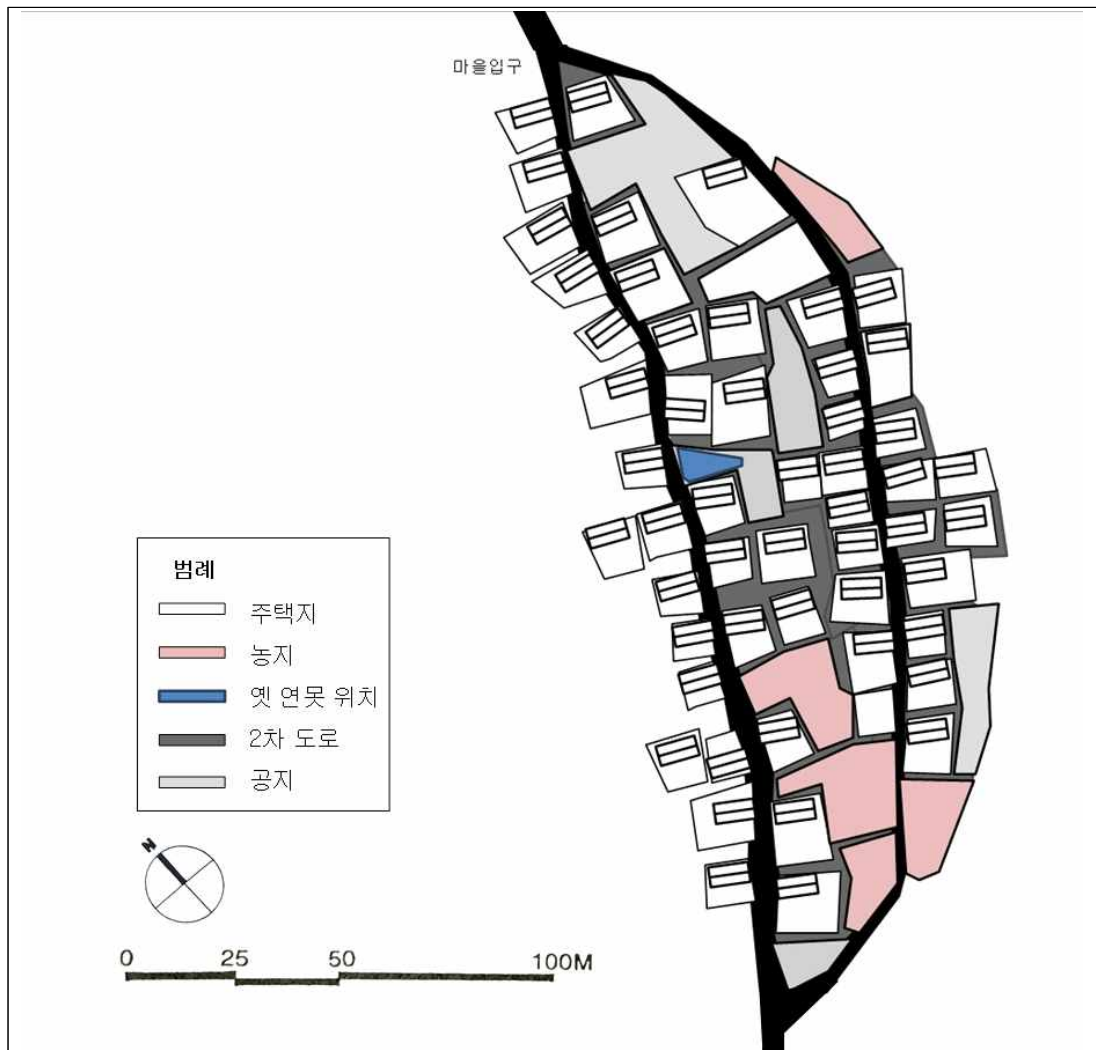


그림 4-11 무이동 마을 토지이용도

왕덴강(王殿剛)(48세)씨가“무이동 풍수이론을 바탕으로 형성 된 마을이다. 주변의 언덕산 때문에 거센 바람을 막아주고, 각진 연못과 각진 공터 모습을 마을의 조화를 이룬다. 비록 옛 연못자리에 지금 공터가 되었지만 외각 형태는 원래대로 여서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듯이 한족마을인 무이동은 이러한 ‘상생상극’론에 의거하여 중국 내 각 지역에서 온 마을한족주민들이 새로운 거시적인 환경에 대하여 인식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음양기운의 조화를 위하여‘화’의 기운이 담긴 뾰족하게 각진 연못과 공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였다. 그 형태에도 풍수이론이 반영되었다. 비록 이러한 풍수이론은 현대과학인 용어로 구체적인 증명은 힘들지만, 현대의 과학문명이 없었을 때 생태계변화를 가만하여 풍수이론은 논리적인부분 자연관과 미에 대한 감성적인 추구과정에서 생성 된 의미체계이다.

왕쑤파(王茂發)(2012)씨에 따르면 무이동 마을은 한족마을의 특유한 풍수이론 의미체계로 인해 모든 마을주택이 정오태양 높이라는 공동한 기점을 중심으로 방향을 정하였기에 마을주택의 방향이 대부분 일치하다. 그림4-12와 같이 그들은 먼저 마을의 입지선정을 하고나서, 마을주택 방향 배치에 있어서 조선족마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4-13, 그림4-14, 그림4-15와 같이 그들은 먼저 주택을 지으려는 위치를 정한다. 그 다음 정오 태양높이를 기준점으로 간주하고, 그 기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1m간격으로‘좌측 점’과‘우측 점’을 표시한다. 그 다음 주택을 지으려는 위치와 두 점을 각각 연결한다. 연결 후 어느 쪽에서 본 경관이 선호도가 높으면 주택을 그 방향으로 짓는다. 이처럼 조선족마을과는 전혀 다른 마을경관이 조성되어있다.



그림 4-12 한족마을 내 주택들의 일치한 방향 향해있다(2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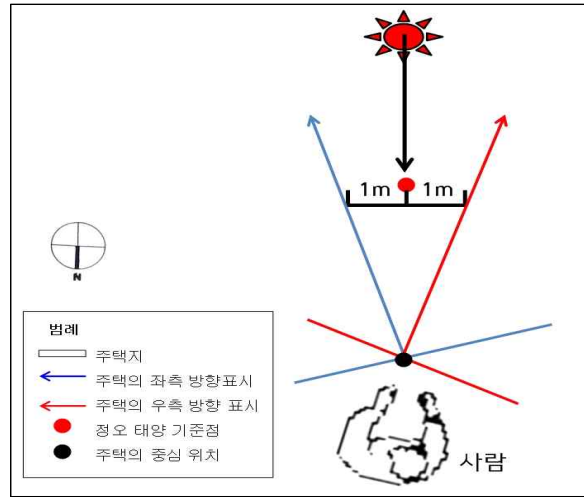


그림 4-13 한족마을 주택배치 방향선정과정 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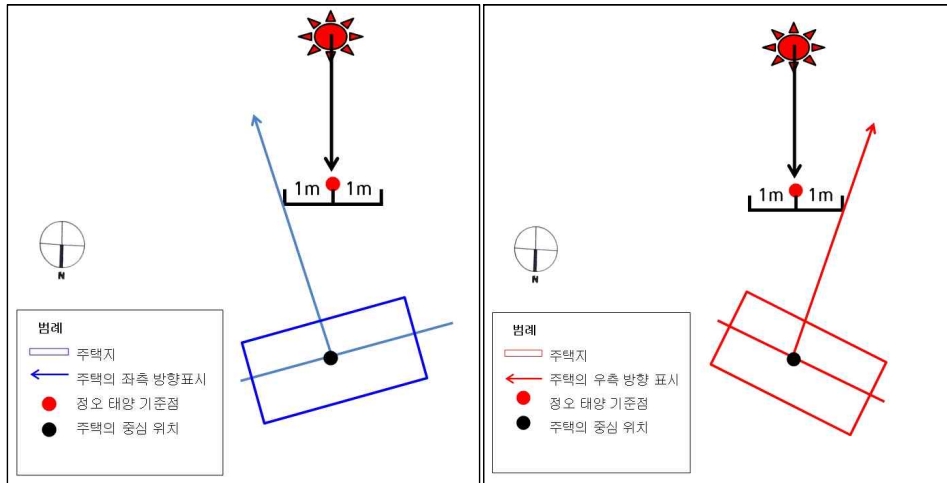


그림 4-14 주택배치 유형 A

그림 4-15 주택배치 유형 B

류젠러(劉建樂)(42세)씨에 따르면 민족 언어의 차이로 인해 한족마을에서는 큰 집 및 본가를 ‘노호(老戶)’이라고 부른다. 노호는 ‘노농호(老農戶)’의 약자이고, ‘농’자를 항상 생략하여 사용한다. 같은 사용법으로 새로 이주해온 이주 가정을 ‘신농호(新農戶)’라 칭하며 “신호(新戶)”로 부르고 있다. 현재 왕쑤파(王茂發)노호 관련 가족은 마을의 1/8을 점하고 있다. 1992년 이후 중국사회의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조선족인구가 줄어든 반면 한족 인구는 더 급증하였다. 한족마을에서의 호칭은 주로 노호(老戶)¹⁷⁾, ○가(家)¹⁸⁾, ○○가(家)¹⁹⁾, 신호(新戶)²⁰⁾로 나뉜다.

17) 노호: 마을 이주 역사 오랜 집

18) ○가(家): 지식 많고, 주택재건, 친목 도모에 등 마을 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

19) ○○가(家): 평범한 가정

20) 신호(新戶): 최근에 새로 이주해온 집

무이동 마을주민의 주민 간 관계의미체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마을주민은 ‘무이동’이라는 마을은 연변지역 조선족문화에 존속한 한족마을 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자기들의 한족문화의 보존 하려고 노력하고, 토론을 통해 지식공유, 마을 개발 및 발전과 경제적 공익을 추구한다. 셋째, 같은 민족끼리 서로 돕고 마을토론회의 을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면서 자기들의 한족문화를 보존하려는 의지, 중국 내 민족 선입견을 버리고 서로 존중하고 민폐를 후회시키고 서로 도우면서 마을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감정 변화가 발생한다. 넷째, 한족의 특성으로 ‘가사불의외전(家事不意外傳)’이라고 가정 내 일이 외부에 알지는 것은 하나의 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족은 이러한 사생활보호의식이 강하므로 지식공유 과정이 쉽지 않다. 또한 타인 상관없이 일단 자기 자신부터 잘 하자는 개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마을의 한족문화 보존에 집단행위보다는 개인이 각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찰을 통해 마을주민의 주민 간 관계의미체계에 대하여 성분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왕홍예(王宏業)씨에 따르면 그림 4-16과 같이 마을주민의 주민 간의 관계 의미체계에서 ‘노호(老戶)’는 마을의 어르신 택이고, 그들을 의사를 존경하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한다. 또한 마을의 대, 소사에 참하여 지식을 공유하는 존재이다. ‘○(성)가(家)’는 마을의 가장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많은 지식 에너지자원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과의 심층 교류가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노호(老戶)’와 함께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역할을 한다. 기타 마을주민들을 각 집에 가장의 이름을 붙여 ‘○○(이름)가(家)’으로 부른다. ‘신호(新戶)’는 마을의 새로운 구성원이고 앞으로 한동안 마을 환경적응 과정이 필요한 집단이다. 이러한 마을주민의 주민 간 관계의미체계는 마을의 공간형태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

무이동 마을주민 중 현재 무이동주민 ‘왕(王)’씨는 가족 3대가 1952년 중국연변 조선족자치주가 성립된 무렵 이곳에 이주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 지금은 마을의 노호가 되었다. 그때 왕씨는 12세였고, 현재까지의 모의동 마을모습 변화에 대하여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 모의동 또한 정착 시간이 긴 마을주민 일수록 옛 마을모습에 대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왕쑤파(王茂發)(75세)씨가 “처음 여기 와서 조선족이라는 민족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다. 예절도 밝고 열정적 이고 특히 연변지역에 마을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많이 숙달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였고, 왕덴강(王殿剛)(48세)씨가 “우리 촌에는 조선족이 아주 적었다. 집 짓는 문화가 다르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으나, 그들이 가

지고 있는 온돌문화는 동북지역의 추위를 이겨가는 큰 도움이 되었고 한족주거문화에 맞게 개변하기 편했다.”라고 하듯이 무이둥이 형성 시 그때 마을주민들은 중국 내 각 지역에서 온 한족들이 주민의 주를 이루었다. 같은 한족문화도 지역에 따라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론체계를 정리하고, 또 연길시 주변 마을 주택 형태도 둘러보고 나서 주어진 건축 재료를 이용하여 빠르고, 쉽고, 편의한 주택을 짓기 시작했다. 처음에 주택지 터를 분배 받을 때에는 가족전체가 함께 있기 위해 입지의 위치보다는 집터의 크기가 더 중요했다고 한다. 가족 중 어르신 택에서 입지를 선정한 다음 관련가족들이 그 주변에 자신의 주택입지를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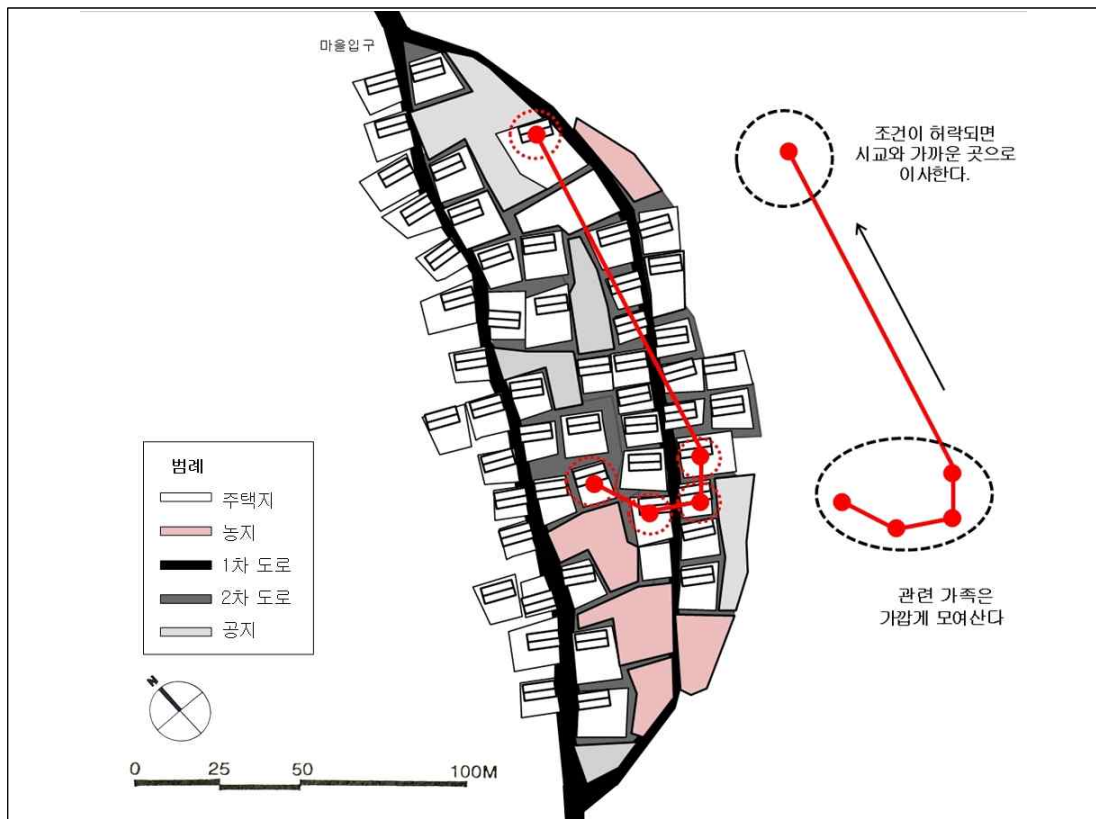


그림 4-16 한족가정 주택 분포 패턴도

연변지역의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 내 공간은 다양한 풍수이론의 의미체계로 인해 공간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현상을 외부자의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봉신사상이 가져다준 행위로만 보지만, 마을의 내부자의 시각에서는 삶의 일부이고, 다소 과학적인 면도 중요시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미체계가 오랜 시간동안 마을주민들한테 가져다준 믿음이다.

4.2 ‘울안’및‘내원’공간

조선족마을에서는 주택 울타리 내 공간을 울안이라고 부른다. 표4-1와 같이 울안 공간에는 마당, 텃밭, 농지, 과수원 등으로 나누어진다.

표 4-1 조선족 울안 공간 분석표

연구과정	내 용	
분석	조선족 울안 공간	마당
		텃밭
		농지
		과수원

림승범(2012)씨에 따르면 조선족마을에서는 주택 주출입구 앞쪽에 위치한 빈터를 마당으로 간주하고 마당은 정확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늘 정리정돈을 통해 다소 널찍한 빈터를 유지한다. 그림4-18과 같이 마당의 빈터 주변에는 물품을 진열해 놓을 수 있는 진열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수뢰, 장작, 항아리 등 물품은 마당 주변에 진열 되어있다. 한족주택과는 달리 다양한 물품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공간은 조선족주택임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다. 주민들은 자주 주택 앞마루에 걸터앉아 고요한 마당공간을 바라보며 심신의 안정을 취한다. 리옥자(2012)씨에 따르면 마을주민들의 의미체계에서 마당공간은 쉼터로 인식되고 있다. 마당이라는 공간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고요한 빈터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의미를 더 중요시 한다. 또한 한족마을과는 달리 조선족마을에서 마당공간은 비록 주출입구 근처에 있는 공간으로서 전이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주변공간과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 내재 된 의미로 인해 ‘쉼터’라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길룡(2013)씨에 따르면 그림4-19, 그림4-21과 같이 조선족마을은 집집마다 독립적인 텃밭 공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관은 한족마을과 차이가 있다. 텃밭은 주민들에게 식사에 필요한 기본 식재를 제공한다. 텃밭에서 나온 식량은 경제적 창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 자신과 접객 시 사용하기 위하여 식량을 생성하는 공간이다. 텃밭공간은 울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이옥자(55세)씨가 “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울안에 밭에서 농작물이 잘 자라

는 걸 보면서 집안 식구들이 마냥 흐뭇하게 지냈지요. 남들도 우리 집을 지날 때 마다 부러워하는 눈치 였습다.” 라고 하듯이 텃밭공간은 조선족마을 내 풍요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이러한 공간은 서로 비교하면서 길흉을 판단하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박룡호(2013)씨에 따르면 그림4-19, 그림4-21과 같이 울안에는 농지 또는 과수원이 있다. 농지와 과수원은 경제적 창출을 위하여 조성 된 농터이고 예전에는 집집마다 울안에 과수원과 농지를 큰 면적으로 조성하였으나 지금은 조선족마을 내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 규모가 점차 작아지는 추세이다. 한때에는 울안의 과수원과 농지는 부의 상징이었다. 울안의 농터와 과수원은 주택건물의 앞쪽 또는 뒤쪽에 위치하여 있다. 조선족마을에서는 울안 내 과수원과 농지를 ‘앞에’, ‘뒤에’라고 부른다. 림성빈(56세)씨가 ‘만약에 주택 뒤에 위치한 과수원에 가서 열매를 수확할 때 우리는 보통 뒤에 가서 열매를 따자’ 라고 사용하듯이 과수원이든 농지든 상관 없이 공간이 주택을 중심으로 공간의 위치에 따라 명칭이 ‘앞에’, ‘뒤에’로 사용한다. 그림4-17와 같이 조선족마을에서는 공간간의 의미체계 관계는 한족마을과 달리 주택과 울안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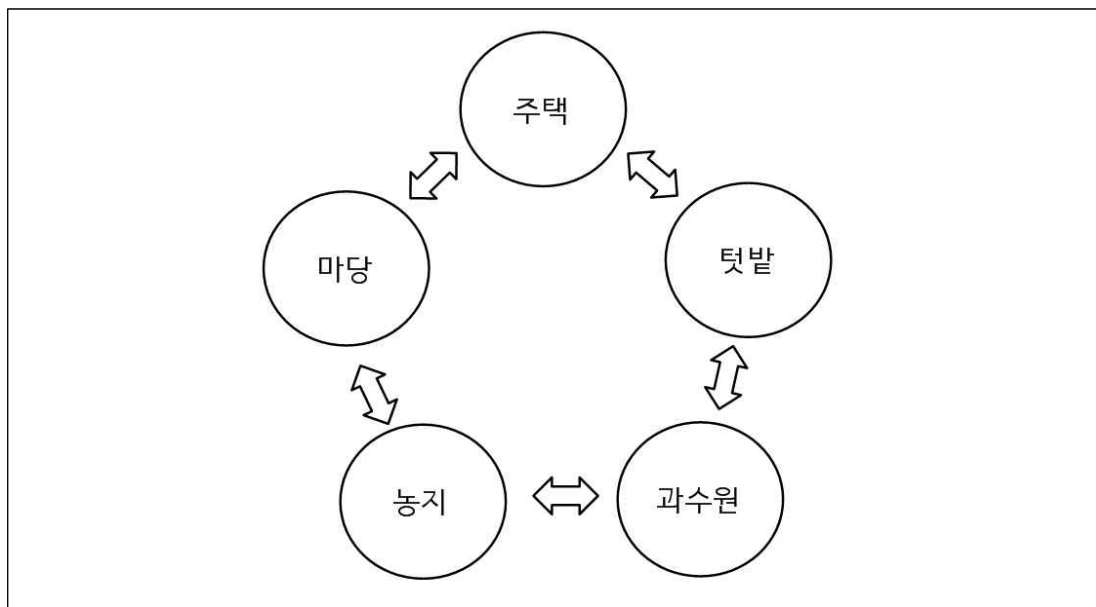


그림 4-17 조선족마을 공간과 공간간의 의미체계 관계 분석도



그림4-18 조선족마을 마당 (20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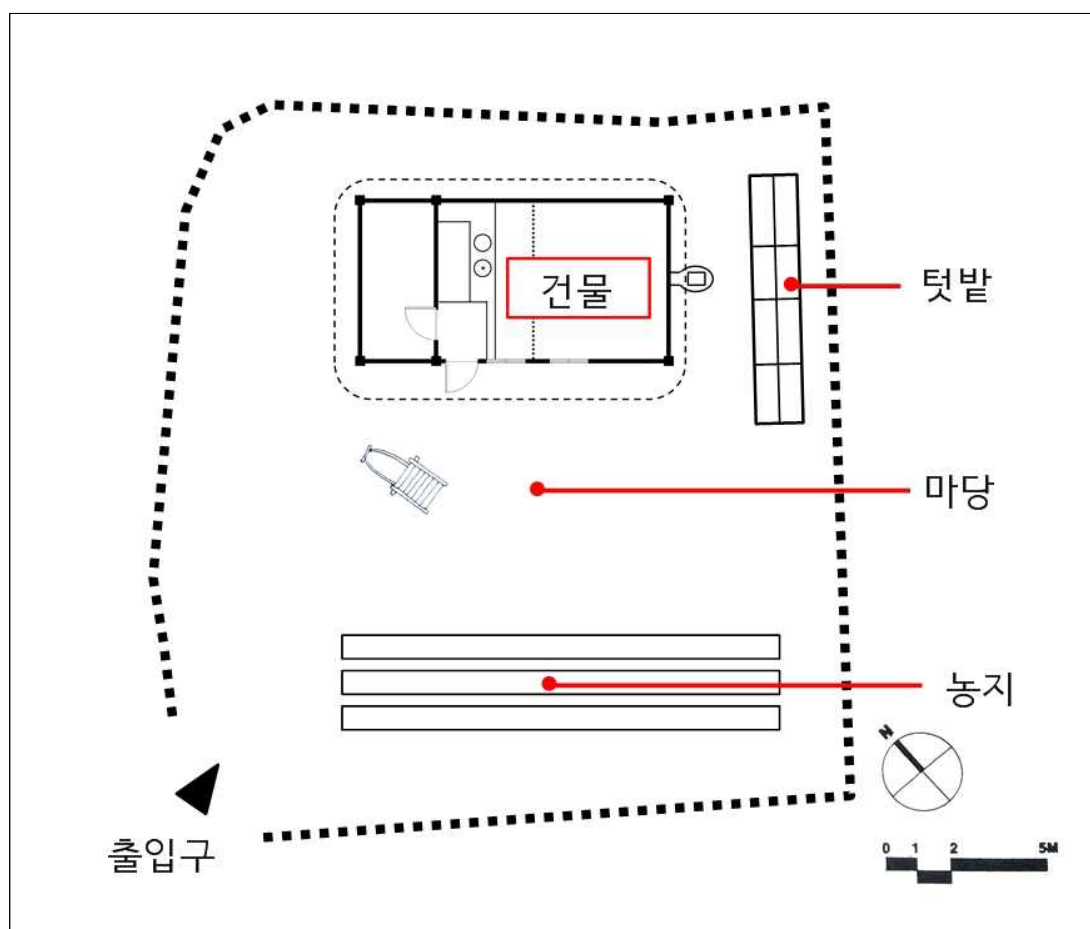


그림4-19 조선족마을 울안 공간 평면도



그림 4-20 과수원과 농지가 함께 있는 조선족 마을집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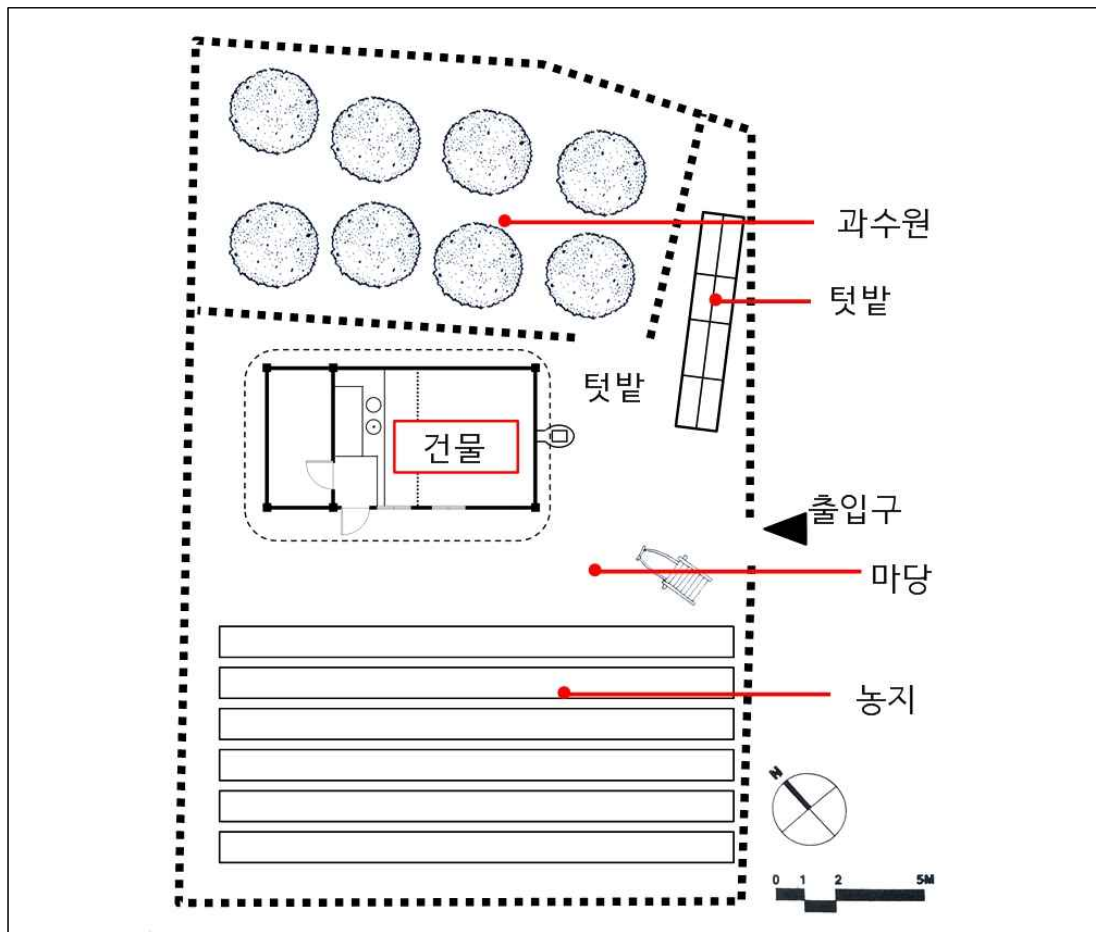


그림 4-21 과수원과 농지가 함께 있는 울안 평면도

한족마을에서는 주택 울타리 내 공간을 ‘내원(內園)’ 이라고 부른다. 표4-2와 같이 내원공간에는 ‘전원(前園)’, 비닐하우스, 창고 등 공간으로 나뉜다.

표 4-2 한족 원내 공간 분석표

연구과정	내 용	
분석	한족 내원(內園) 공간	‘전원(前園)’
		농지
		창고

왕쑤파(王茂發)(2012)씨에 따르면 한족마을 내원 공간에는 조선족마을처럼 마당과 같은 빈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족주택의 주출입구 앞쪽 주변공간을 전원이라고 부른다. 그림 4-22와 같이 전원은 현관문과 주택출입문, 농지, 창고로 연결되어있는 전이공간이고 비록 좁은 통로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부적인 의미체계에서 전원을 하나의 정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림 4-22 한족마을 무이동 내 현관문을 통해 보이는 전원공간 (20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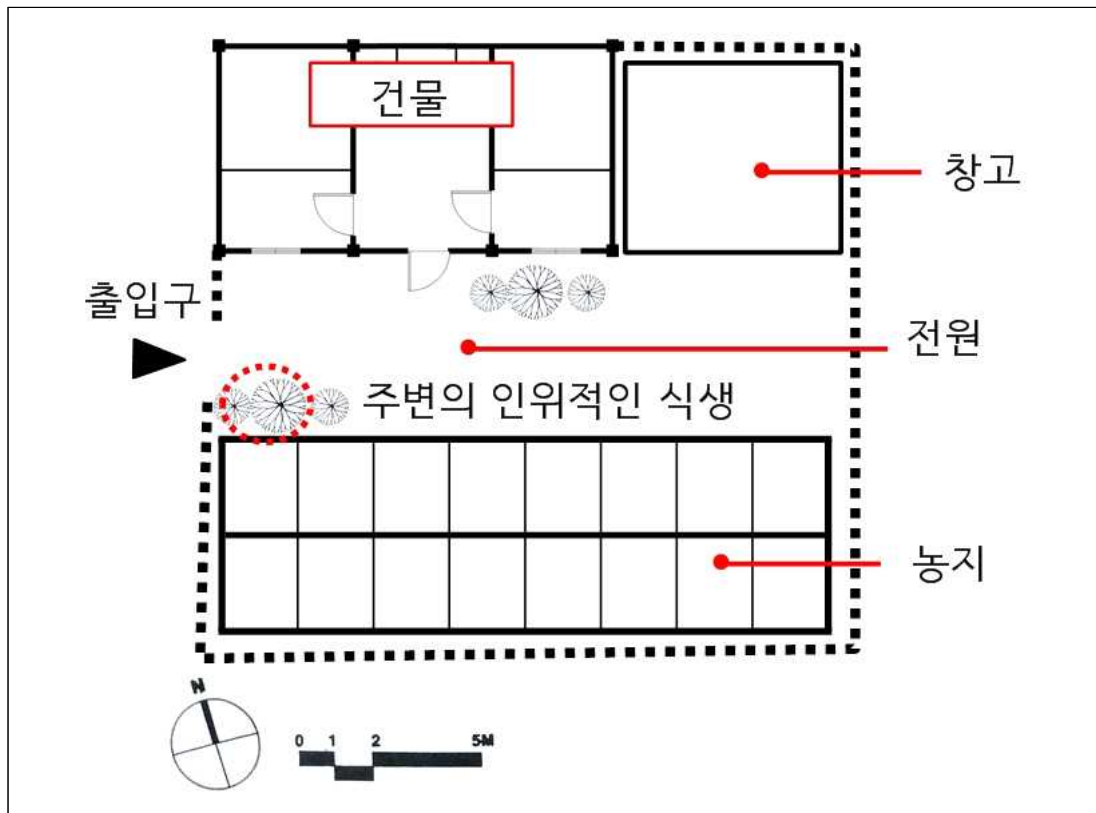


그림 4-23 한죽마을 내원공간 평면도

천보련(陳寶蓮)(2013)씨에 따르면 전원공간이 정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림4-23와 같이 전원공간 내 곳곳에 인위적인 정원 가꾸기 식생공간이 형성 되어 있다. 이러한 식생 또한 ‘음양오행’이론을 바탕으로 식생의 색상상과 외형에 따라 배치 되어있다. 왕덴강(王殿剛)(48세)씨가 ‘예전에 아버지께서 저의 주택출입구 주변에 화(火)의 기운이 있는 붉은 장미를 심었습니다. 무이둥은 예로부터 주변에 금의 기운이 쉼터여서 상생상극의 원리로 식생에 반영하여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듯이 ‘음양오행’은 마을주택 내부의 공간배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문화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한죽마을 내원공간에서 전원은 주변 모든 공간과 연결되어 있고 전이공간으로 주로 사용한다. 또한 왕쑤파(王茂發)(2012)씨에 따르면 그림 4-24와 같이 전원 공간은 전체 주택공간에서 유일하게 모든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중앙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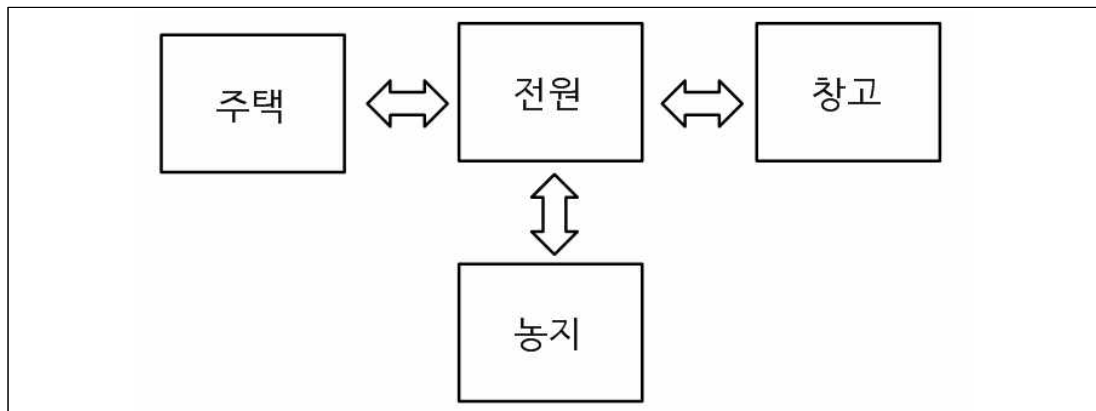


그림 4-24 한족마을 내 정원공간과 모든 공간과의 의미체계 관계 분석도

왕덴강(王殿剛)(2013)씨에 따르면 한족주택 주택건물에서 나와 보이는 경관은 바로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농지이다. 겨울에는 동쪽, 서쪽, 남쪽 담장을 연결시켜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는다. 높은 담장 때문에 내원에서 밖으로 내다볼 수 있는 공간은 모두 차단 되어있고 반대로 외부에서도 주택 내에 있는 사물을 드러다 볼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 졌다. 그림4-25와 같이 겨울에는 큰 비닐하우스 공간 때문에 주택 앞 전경을 완전히 가려져 있다. 이는 주택 앞에서 먼 산의 산봉우리가 보이는 조선족마을주택 구조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마당공간과 정원공간 간의 공간형태만 구분하여도 집주인이 한족인지 조선족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25 겨울이면 주택 앞에 농지에 설치된 커다란 비닐하우스 (2012).

뤼정궈(呂正國)(2012)씨에 따르면 한족마을의 내원 공간에는 대부분 주택건물 옆에 창고로 쓸 추가건물을 짓는다. 이러한 건물은 주로 나무를 건축재로 사용하여 만들어 졌다. 그림4-26와 같이 한족가정은 가족성원이 조선족가정보다 많기에 주택 내부공간에 조성한 저장공간의 크기가 부족하여 외부에 창고를 짓는다. 창고는 한족주민들한테 부의 상징이다. 주택 외각에서 볼 때 창고가 크고 활성화 잘 되어 있는 가정은 부유한 가정임을 미리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26 주택건물 옆에 붙어 있는 창고(2012).

조선족과 한족의 주거문화의 차이로 인해 마을 내 같은 유형의 공간일 지라도 부동한 경관형태로 조성 되어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문화의 정체성 차이를 재차 확인 할 수 있는 실증적 도구이다. 주거문화의 차이가 경관조성에 반영된다는 것은 유사한 공간이라도 장소성이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러므로 외부자의 시각에서 이러한 문화경관의 장소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경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진행 하려면 반드시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내부적인 관점으로 의미체계와 지식체계의 이해하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내부적인 관점에서 얻은 데이터는 향후 같은 계열 문화경관 보존 및 복원 시 유용한 데이터로 이용 될 것이다.

4.3 ‘집’건물의 내부공간

연변지역 조선족 마을주거문화는 대부분 함경북도지역에서 전파해온 주거문화이다. 이러한 문화가‘연변지역’이라는 다른 문화 속에 존속하는 과정에서 변화 되었다. 대상지 주택 내부공간의 구성요소는 표4-3과 같다.

표 4-3 조선족 주택구조 분석표

연구과정	조선족 주택구조		
분석	통칸형과 분칸형	정주칸	바닥
			부스칸
			가매목
			정지구들
		옷방	
		창고	

정창복(2013)씨에 따르면 현재 연변지역에서 제일 흔히 만날 수 있는 주택구조는 ‘통칸형’이고, 극소수가 ‘분칸형’으로 되어있다. 그림4-27, 4-28과과 같이 ‘통칸형’이란‘정주칸’과‘옷방’공간이 중간에 아무런 장벽 없이 통해있는 원룸형태를 말한다. 그림4-29, 4-30과 같이 ‘분칸형’은‘정주칸’과 ‘옷방’공간이 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다. 대부분 주택이 ‘통칸형’으로 구성하게 된 계기는 마을 집집마다 보다 높은 경제적 창출을 위하여 도시로 향한 가족성원이 날로 많이 집에 따라 안 쓰는 방이 많아지고 옛 주택에 대한 복구와 재건 과정에 필요에 맞게 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점점 ‘분칸형’이 ‘통칸형’으로 자연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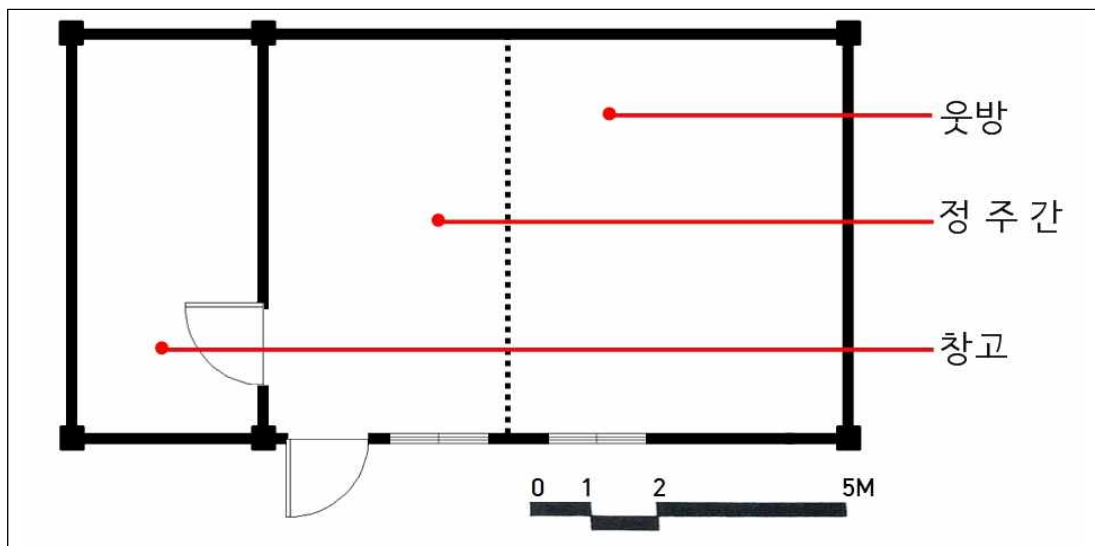


그림 4-27 '통칸형' 주택구조 평면도



그림 4-28 '통칸형' 주택구조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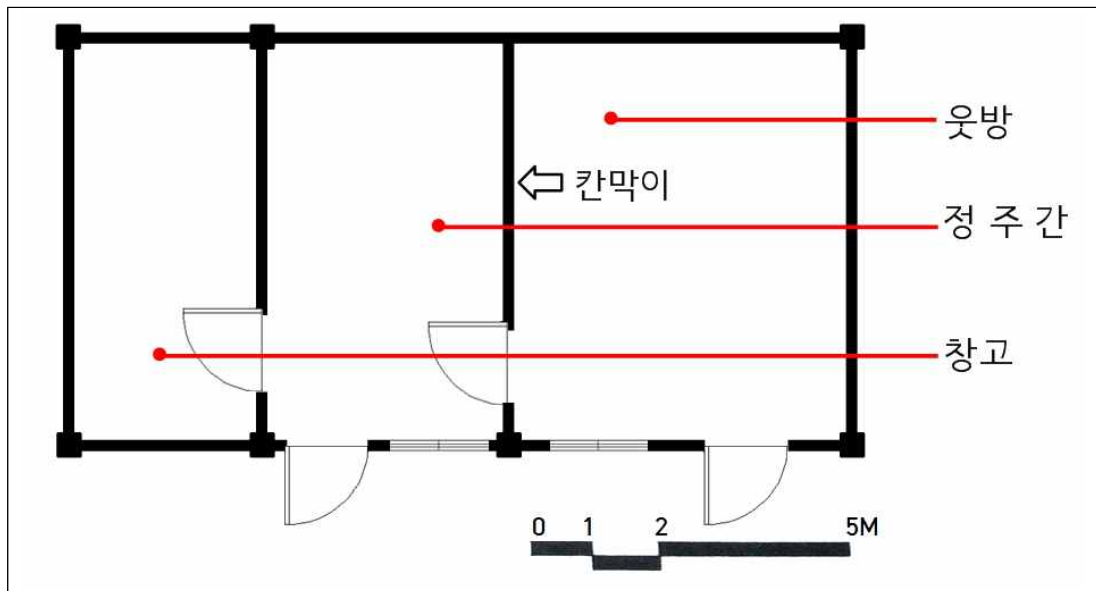


그림 4-29 ‘분칸형’ 주택구조 평면도



그림 4-30 ‘분칸형’ 주택구조 (2012).

리옥자(2012)씨에 따르면 그림4-31과 같이 ‘정주간’ 공간에는 정주간공간에는‘바닥’,‘부스칸’,‘가매목’,‘정지구들’이 있다. 그중 ‘바닥’공간은 ‘부엌’, ‘옷방’, ‘창고’ 등 공간과 연결되어있는 공간이고, 주택 주출구와 연결 되어있다. 두만강, 압록강 유역의 조선족은 바닥을 ‘바당’이라 부르고,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내륙지역의 조선족들은 ‘공간’또는 ‘띠실’이라 한다. 그림4-32와 같이 ‘바닥’과 ‘정지구들’은 단차이가 약30cm 되고 ‘옷방’으로 올라갈 때 신발을 벗어 놓는 공간이다. 또한 체적이 작은 짐을 단기간 놓을 수 있는 저장공간 이기도 하다. 이처럼 ‘바닥’공간은 생활의 중심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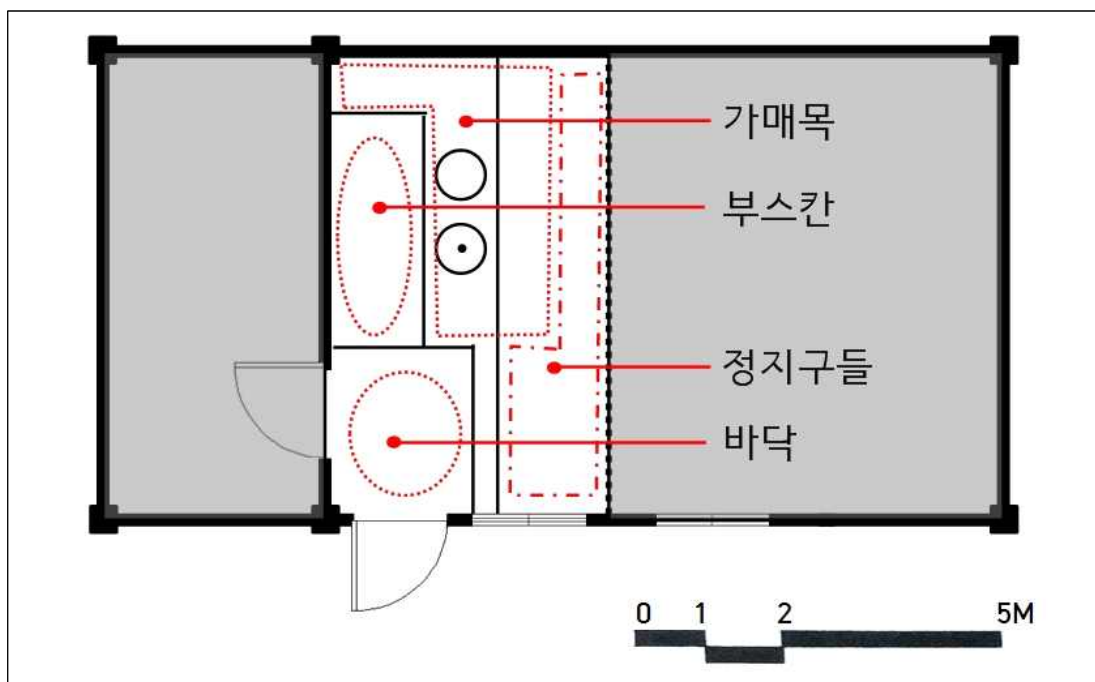


그림 4-31 정주간 공간 평면도



그림 4-32 조선족 마을주택 내 ‘바닥’ 공간 (2013)

리삼룡(2012)씨에 따르면 아궁이가 있는 ‘부스칸’ 공간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집혀 온돌을 덥혀서 실내온도를 조절하고 취사준비 시 불의 크기를 조절하는 공간이다. 그림 4-33과 같이 바닥보다 15-30cm 좌우 낮게 설치하고 위에 널판자를 깔아 먼지를 막는 동시에 작업 공간을 확장한다. ‘가매목’에는 가마솥이 2~3개 정도 장착되어 있다. 모든 취사작업은 여기서 진행된다. ‘가매목’ 공간은 취사를 준비할 수 있는 생활보장 공간이다. 보편적인 가정에서 남성이 불을 집힌 다음 여성이 취사를 준비한다. 마을주민들한테 ‘부수칸’, ‘가매목’은 일종의 작업공간이다.

류길승(2012)씨에 따르면 연변지역 조선족마을에서는 ‘정지구들’ 공간을 ‘정지’라고도 부른다. ‘정지구들’은 부뚜막처럼 생겼고, 세면트로 구성된 온돌공간이다. ‘정지구들’ 공간은 ‘옷방’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통컨형’ 주택에서는 ‘정지구들’과 ‘옷방’의 경계선을 정하기 힘들다. 외부자의 시각에서는 두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두 공간의 용도는 극부적인 차이가 있다. 두 공간 모두 접객공간으로 사용가능하지만 제일 큰 차이점은 ‘정지구들’ 공간에서는 잠깐 앉아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단락공간으로서 단락하는 손님을 접대하는 접객공간이고, 옷방은 손님을 정중하게 모시는 접객공간이다. 그 외에도 ‘정지구들’ 공간은 식사, 취침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간이다.‘정지구들’공간은 생활의 복합공간이다.



그림 4-33 널판자를 낸 ‘부스칸’ 공간과 ‘가매목’ 공간(2013)

리옥자(55세)가 “ ‘옷방’은 예전에는 할아버지와 같은 어르신이나 아니면 집에 가장이 쓰는 방입니다. 옛날에는 ‘고방’이라고 ‘옷방’ 뒤에 여자들이 쓰는 방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남녀평등이라서 다 없어 졌습니다.”라고 하였고 조정룡(56세)씨가 “‘옷방’공간은 식사, 취침, 오락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지만 무엇보다도 예로부터 집 어르신 또는 가장이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주택 내 공간 중 가장 권위 있는 공간이다. 또한 손님을 정중하게 모시는 공간이고, 집안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이기에 실내 공간 중‘가장 중요한 공간’이다.”라고 하듯이 ‘옷방’은 ‘정지’공간과 인접한 공간이다. 조선족마을에서는 옷방을 ‘방’이라고도 부른다. ‘분칸형’주택에는 이러한 ‘방’이 2~4개 정도 있다. ‘방’이 하나인 ‘통칸형’주택에서 ‘옷방’공간은‘식사 공간’,‘취침공간’,‘저장공간’,‘접객공간’,‘오락공간’,‘전시공간’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분칸형’일 경우 ‘방’마다 용도가 구분되어있다. ‘일(日)형’일 경우‘정지구들’과 인접해 있는 ‘방’은‘식사공간’,‘접객공간’,‘오락공간’,‘전시공간’으로 이용하는 오픈 된 공간이다. 안 쪽에 위치하여 있는‘옷방’은 주로‘취침공간’,‘개인물품 저장공간’으로 이용하는 사생활 관련 공간이고 대부분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구성되어있다. 마을 인구수가 줄어들면서‘전(田)형’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옷방’의 유형은 그림 4-34, 그림4-35, 그림4-3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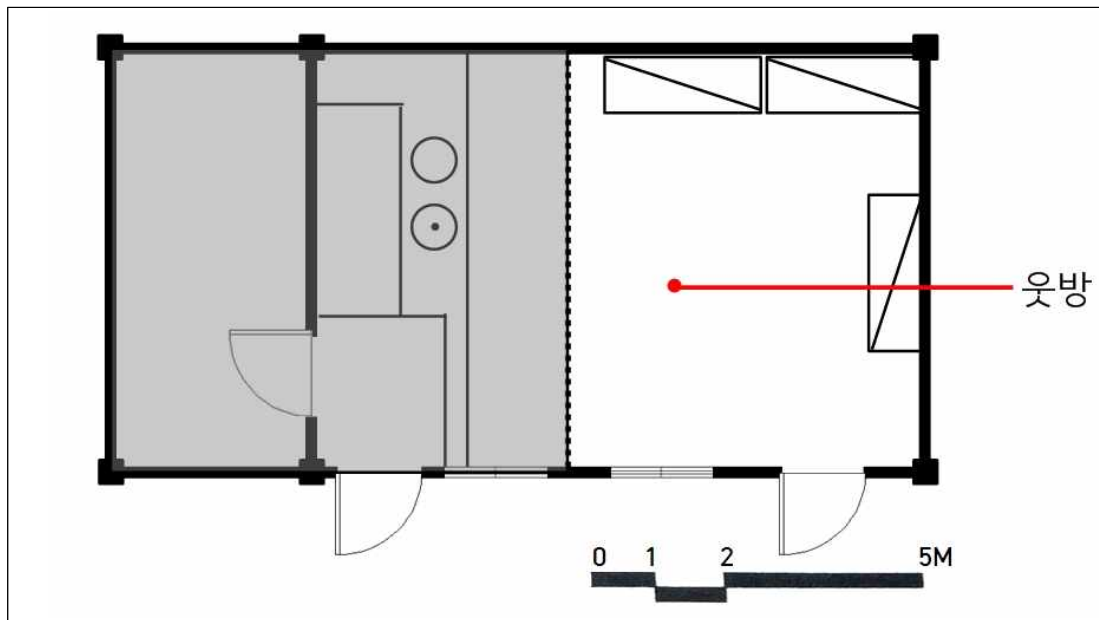


그림 4-34 칸막이가 없는 ‘옷방’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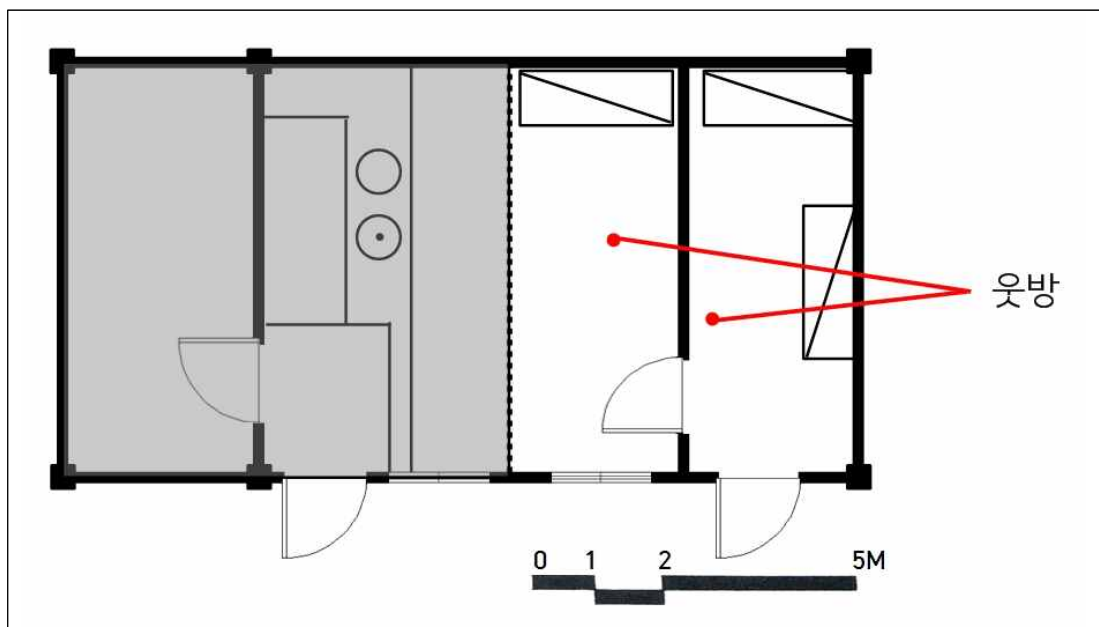


그림 4-35 칸막이가 있는 日형 ‘옷방’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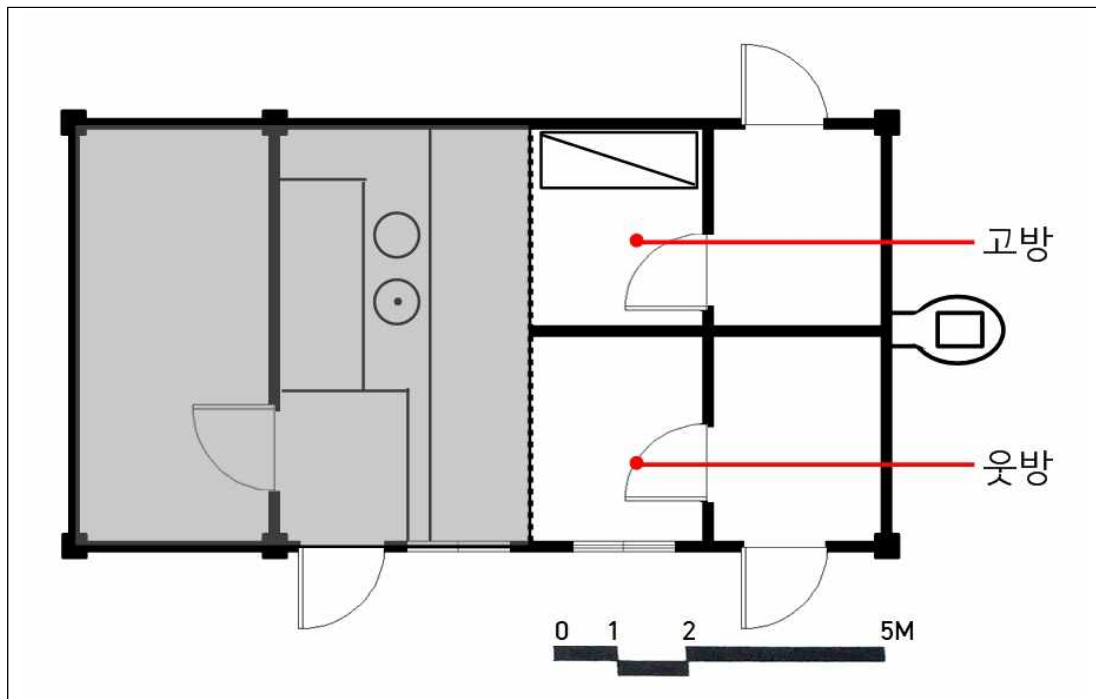


그림 4-36 田형 ‘옷방’ 평면도

현길룡(2012)씨에 의하면 ‘창고’는 ‘바닥’공간을 중심으로 ‘옷방’의 반대편에 위치하여 있다. 림성범(56세)씨가 “옛날처럼 마을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는 집집마다 늙은이하고 아들만 남아서 농사도 별로 못합니다. 그래서 외양간이고 방앗간이고 다 쓸데없어서 집을 수리할 때 그냥 없애버렸습니다.”라고 하듯이 현재 ‘창고’공간은 과거에 ‘외양간’과 ‘방앗간’으로 쓰였지만 1960년 마을정미소의 설치로 인해 ‘방앗간’은 기능을 잃었고, ‘외양간’공간은 주택 외부에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림4-37, 4-38과 같이. 지금은 그 ‘창고’공간은 농기구 보관이나 식량 보관 등 ‘저장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방 크기 또한 예전보다 많이 작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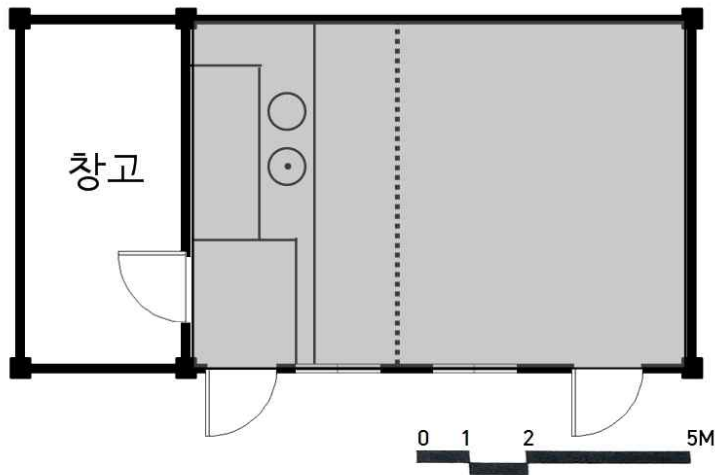


그림 4-37 조선족 주택 내 창고 평면도



그림 4-38 창고(2013)

이처럼 조선족주택에서 '정주칸'은 실내 모든 방과 연결되어있는 교역공간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다용도공간이다. 옷방은 주택 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고 집주인의 일상생활공간이다. 식사, 취침, 오락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손님을 방기는 조선족의례의문화 때문에 다소 오픈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외부인이 없을 때에는 유일한 사생활공간으로 이용된다. 옷방에서 접객하는 것은 손님에 대한 환영을 표시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옷방은 "중시를 받고 있다."는 내부적인 의미를 가진다. 창고는 물품을 대량 저장할 수 있는 주택 내 유일한 저장공간이다.

왕쑤파(王茂發)(2012)씨에 따르면 한족민가의 원형을 ‘합원식(合院式)’ 민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배치와 평면구성, 세부처리 등의 관습들 모두가 合院式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그 세부적 적용에 있어서는 중국 동북부 지방 기후에 적응하면서 벽의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창(窗)의 크기가 작아지는 등의 차이가 있다(이원석, 2000). 그들의 주거문화의 이론적 바탕은 ‘대칭사상’이다. 그림4-39와 같다. 대상지 현장연구에서 관찰을 통해 현재 주택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표 18>과 같다.

표 4-4 한족 주택구조 분석표

연구과정	한족 주택구조	
분석	‘구(口)자(字) 대칭형’ , ‘일(日)자(字) 대칭형’	‘당(堂)옥(屋)’
		‘동(東)옥(屋)’, ‘대(大)옥(屋)’
		‘서(西)옥(屋)’, ‘소(小)옥(屋)’



그림 4-39 ‘대칭사상’ 이 반영된 중국 사합원 구조도
(<http://baike.baidu.com/subview/13973/5081832.htm>)

류젠러(劉建樂)씨에 따르면 한족마을의 주택구조는 살림채 가운데에는“당(堂)옥(屋)’이 위치하고, 양쪽에 침실인 ‘동(東)옥(屋)’, ‘서(西)옥(屋)’이 배치되는 구성방식을 하고 있다. ‘청당’을 중심으로 ‘구(口)자(字) 대칭형’, ‘일(日)자(字) 대칭형’이 있다. 그 외에 예전에는 ‘목(目)형’주택구조도 있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목(目)형’주택은 조선족주택 내부의 조선족온돌구조만 한족온돌로 바꾼 형태이다. 한족마을 주택구조 유형은그림4-40, 그림4-41, 그림4-42와 같다. 천보련(陳寶蓮)(2013)씨에 따르면 한족마을 주택구조에서 가운데 청당은 밝고, 나머지 두 칸은 어둡다고 하여 ‘一明二暗’이라고 한다. 집의규모가 커질 경우 ‘청당’ 좌우의 ‘동서옥(東西屋)’이 양쪽 모두 칸수를 늘려서 5칸이 되는 경우가 있다. 내·외벽은 대부분 벽돌로 처리되어 추운 기후의 보온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 한족의 지실은 보통 흙바닥으로 되어 있어 신발을 신고 입식생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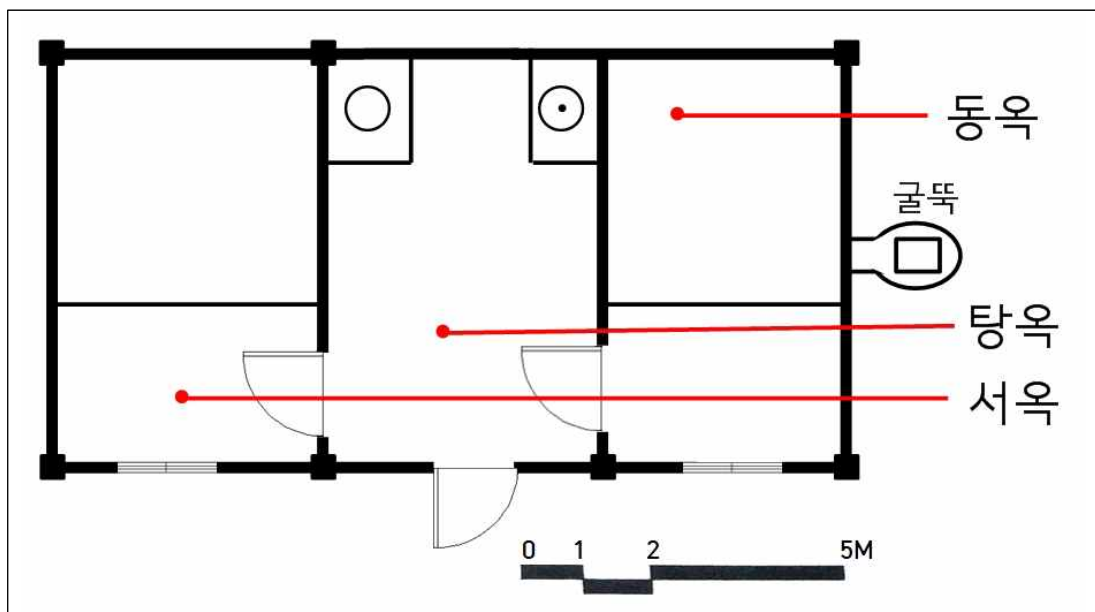


그림 4-40 ‘구(口)자(字) 대칭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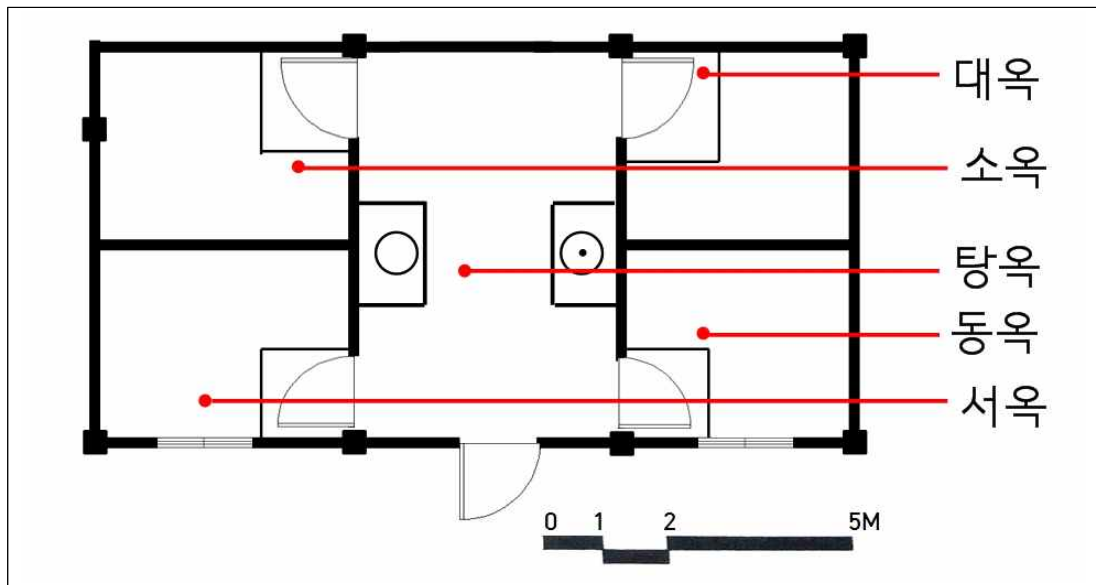


그림 4-41 일(日)자(字) 대청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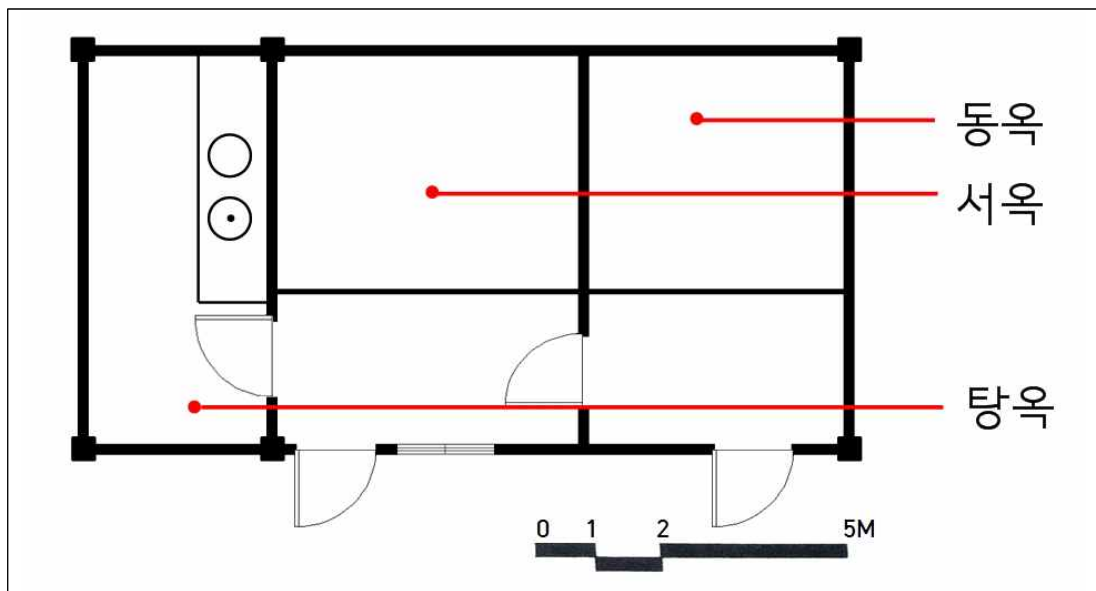


그림 4-42 목(目)형' 주택 평면도

왕홍예(王宏業)(2013)씨에 따르면 그림4-43과 같이 ‘탕옥’공간은 주 출입문을 통과하여 주택내부로 들어가면 처음 도착하는 방이 ‘청당’공간이다. 왕쑤파(王茂發)(2012)씨에 따르면 한죽마을에서 주택 내 ‘당(堂)옥(屋)’공간은 중앙칸이다. 한죽은 중앙칸을 중심으로 좌우방이 대칭되어 있다. 내부공간의 사용방식을 보면, 한죽은 중앙의 청당을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한다. 청당은 부엌으로 사용되고 동시에 식사공간과 작업공간 등 가족생활의 중심공간이지만, 청당의 북쪽 벽에 조상의 신위를 모시는 제례적 중심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접객하는 곳이고, 식사준비를 하거나, 식사 과정에서 ‘교류공간’으로 가 많이 쓰고 있다. 양쪽의 침실은 그 사용에 있어 ‘좌상우하(左上右下)’의 원칙에 따라 청당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동쪽방이 서쪽방보다 위계성이 높은 공간으로 여겨져 집안의 어른이 동쪽방에 기거하게 된다. 동쪽 방을 대(大)옥(屋)’으로도 부르고, 서쪽 방을 소(小)옥(屋)’으로도 부른다.

류젠러(劉建樂)(42세)씨에 따르면 ‘탕옥’공간에는 양쪽 벽에 가마솥 또는 아궁이가 설치되어있다. 거시적인 환경만 보면 외부자의 입장에서‘탕옥’공간은 아궁이에 불을 집혀 각 방에 온도를 덥히는 작업공간으로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탕옥’공간은 주민의 내적인 의미체계로 인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청당’공간은 취사공간, 전의공간, 작업공간 뿐만 아니라, ‘탕옥’에서 접이식 원형 테이블과 접이식 의자를 배치하여 ‘탕옥’공간은 식사공간으로 변형 된다. 만일 주택이‘구(口)자(字) 대칭형’일 경우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는 ‘청당’공간 내 구석 벽 쪽에 일렬로 배치 되어있고,‘일(日)자(字) 대칭형’ 구조이면 소옥에 저장해 놓는다. ‘탕옥’공간에서 작업과정과 식사과정에서 서로 담소를 나누는 상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평소에 농사일 없을 때 예도 이루어진다. 그들은 접이식 의자를 놓고 ‘탕옥’공간에서 편하게 담소를 나누면서 ‘탕옥’공간을 교류공간으로 인식하고 사용한다.



그림 4-43 당(堂)옥(屋) 공간(2012)

뤼정궐(呂正國)(2012)씨에 따르면 ‘동옥’과 ‘서옥’은 조선족주택에서의 ‘웃방’과 같다. 사생활공간인 이곳은 외부의 방문을 꺼려하는 공간이다. 그중 ‘동옥’은 집안 가장이 머무는 방이다. 주택 내 동옥공간은 가장 권위 있는 장소이고 집안에 중요한 일은 ‘동옥’에서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 노령화로 인해 집집마다 ‘동옥’을 집안 어른이의 독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가장은 서옥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제는 서옥이 주택 내 가장 권위 있는 장소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그림 4-44과 같다. ‘동옥’에 머물러 있는 어르신은 행도 불편으로 외부의 농사일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동옥을 실내 작업공간으로 사용한다. 그림 4-45와 같다. 이처럼 동옥은 과거의 가장 권위 있는 공간에서 점차 실내 작업공간으로 공간의 장소성 의미가 변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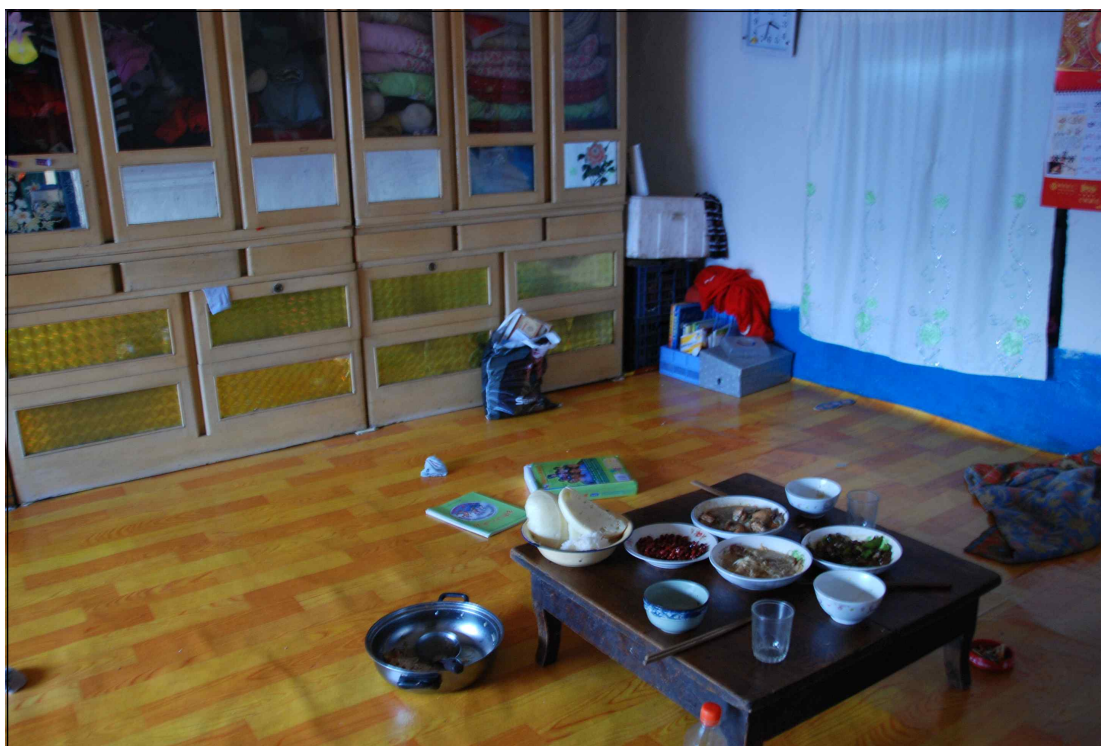


그림 4-44 무이둥 ‘서(西)옥(屋)’ (2012.2)



그림 4-45 무이둥 ‘동(東)옥(屋)’ (2012.1)

왕홍예(王宏業)(2013)씨에 따르면 한족은 사생활 보호의식이 강하여 낯선 손님이 주택 실내를 방문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 한다. 만약 낯선 손님이 방문 할 경우 되도록 ‘청당’공간에서 접객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동옥’과 ‘서옥’에 관련 사진자료는 전부는 주인의 허락을 받고 실내에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촬영한 사진들이다. 한족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족마을에서의 인터뷰는 대부분 실외에서 이루어 졌다. ‘동옥’과 ‘서옥’ 모두 기본 가구 세팅이 되어 있고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면 각 방마다 TV가 설치 되어있다. 또한 ‘동옥’과 ‘서옥’은 오락공간이고, 취침공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동옥’과 ‘서옥’은 익숙한 사람들끼리 출입가능한 공간이고, 주민의 사생활공간이다.

왕덴강(王殿剛)(48세)씨에 따르면 주택의 면적이 클 경우 ‘일(日)자(字) 대칭형’주택에서 ‘동옥’과 ‘서옥’ 뒤에 각각 방 하나씩 추가 한다. 4개 방의 호칭을 편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동옥’ 뒤에 방을 ‘대옥’으로 부르고, ‘서옥’ 뒤에 있는 방을 ‘소옥’으로 부른다. ‘동옥’과 ‘서옥’을 가끔 ‘대옥’또는 ‘소옥’으로 사용하지만, ‘대옥’과 ‘소옥’을 ‘동옥’또는 ‘서옥’으로 부르지는 않는다. 이것은 위계의 의미체계에서 형성 된 한족마을만 가지고 있는 용어이다. 왕쑤파(王茂發)(2012)씨에 따르면 그림4-46, 4-47과 같이 대옥과 소옥은 주택에서 대부분 저장공간으로 사용한다. 가끔 소옥을 출가하지 않은 자녀의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온돌이 없어서 취침공간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같은 저장용도로 사용하는 대옥과 소옥에도 구체적인 차이가 있다. 대옥은 장기간 저장하는 물품저장고이고, 소옥은 자주 꺼내 쓰는 물품을 저장하는 실내 창고로 쓰인다. 이러한 장소성 때문에 대옥은 다소 정리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보유하고 소옥은 대옥에 비해 물품배치가 지저분하다.

한족주택에서 ‘탕옥’은 주택 내 중심공간이고 주요한 용도는 방을 덥히는 작업 공간이고 취사공간이다. 공간의 내적인 의미에서 볼 때 ‘탕옥’공간은 실내에서 중요한 교류공간이다. ‘동옥’과 ‘서옥’은 사생활공간이고 일상이 시작 되는 공간이고, 가장이 머무르는 방은 집안 대소사가 진행되는 공간이고 익숙한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는 권위 있는 공간이다. ‘대옥’과 ‘서옥’은 모두 저장공간이고, 서로 용도를 보충해주는 관계 의미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4-46 무이둥 ‘대(大)옥(屋)’ 공간(2012).



그림 4-47 무이둥 ‘소(小)옥(屋)’ 공간(2012).

4.6 마을 길

정창복(2012)씨에 따르면 조선족마을에서 마을길은 표4-5와 같이 큰길과 ‘○○네 가는 길’로 나누어진다. 마을의 주택 입지가 균일하게 조성된 것이 아니라 풍수지리이론에 맞게 먼 안산의 산봉우리를 향해 배치하였으므로 큰길 외에 모든 길은 구불구불한 오솔길로 조성이 되어 있다. 이러한 오솔길은 큰길과 마을주민 집을 연결시켜 주는 통로이다. 각 오솔길은 마을주민주택으로 연결되어있어서 마을주민들은 이러한 오솔길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이름)네 가는 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었다. 마을길 평면도는 그림 4-48과 같다.

표 4-5 조선족 마을길 분석표

연구과정	내 용	
분석	조선족 마을길	큰길
		○○네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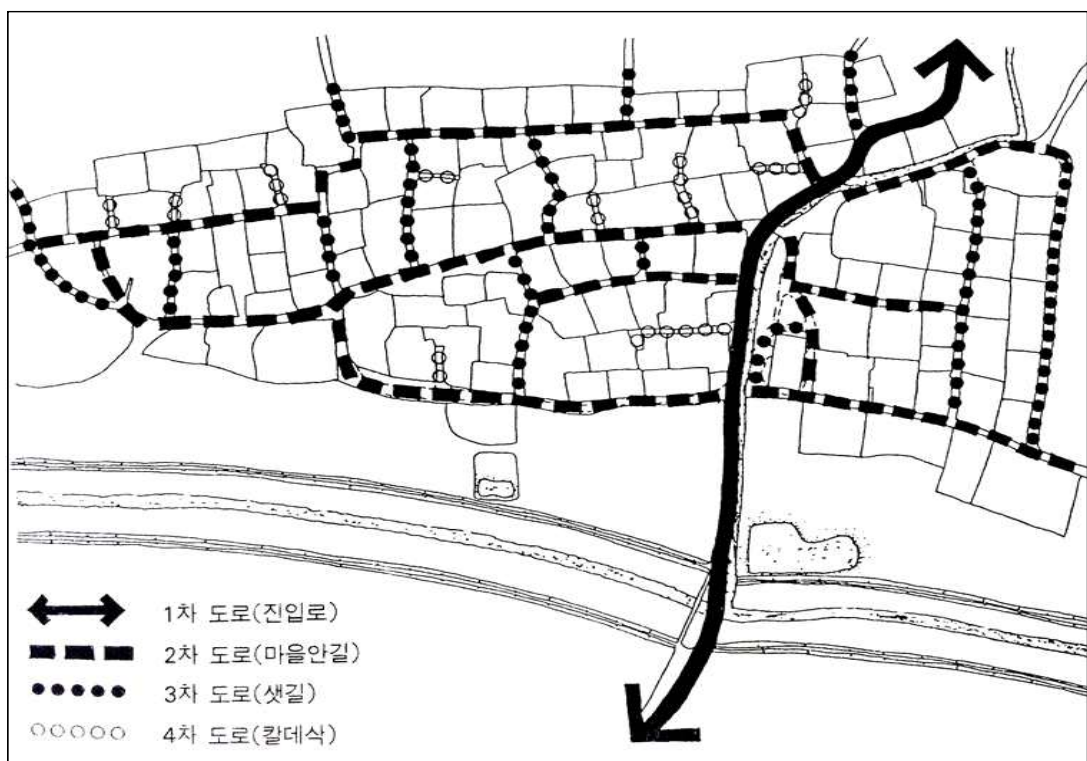


그림 4-48 장재촌 마을길 평면도 (연변문서자료14집, 2010).

왕덴강(王殿剛)(48세)씨에 따르면 한죽마을에서 마을길은 대도와 소도로 나누어 다. 표4-6과 같이 마을의 주택 입지는 대부는 서로 근접해 있고, 주택이 향해있는 방향도 같아서 마을 내 길은 대부분 지선 길로 이루어진다. 또한 대부분 주택은 큰길 옆에 조성이 되어 있어서 소도보다는 대도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림 4-49와 같다.

표 4-6 한죽 마을길 분석표

연구과정	내 용	
분석	한죽 마을길	대도
		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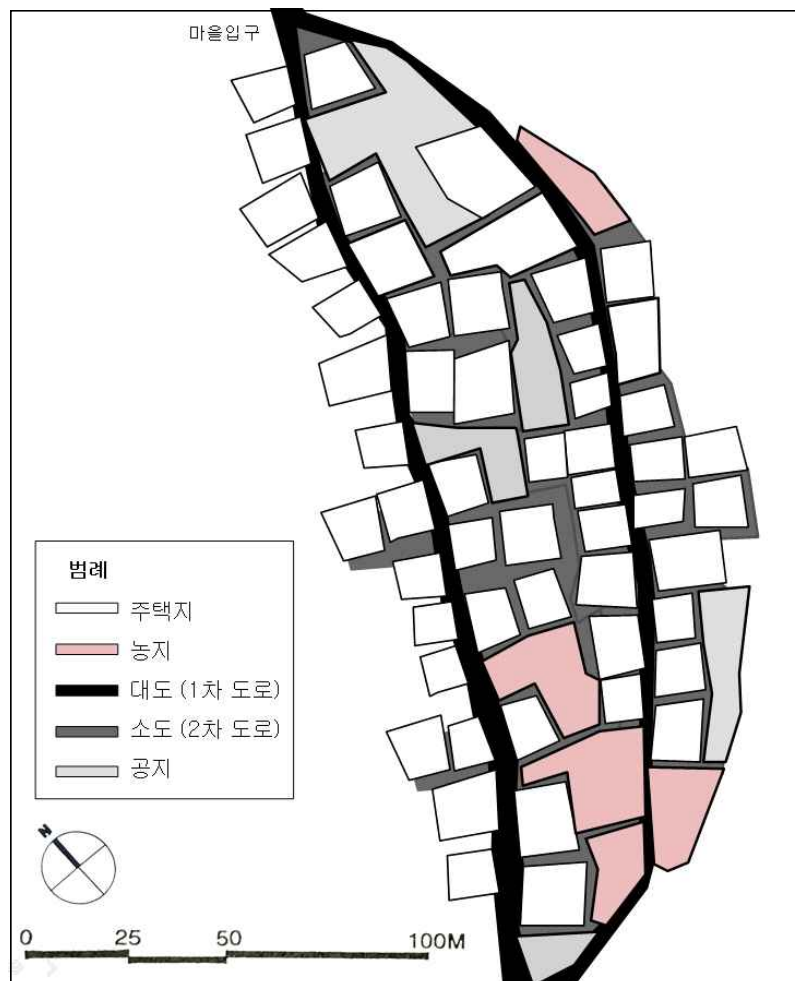


그림 4-49 모의동 마을길 평면도

류길선(2013)씨에 의하면 조선족 마을길의 경관은 주변 주택지의 울타리 식생으로 장식 되어있다. 각 주택지에서 울안 농지공간에 무슨 장물을 재배하였는지에 따라 마을길의 형태가 차이가 있다. 그림 4-50과 같다. 리옥자(55세)가“ 이 길을 따라 쪽 가다보면 오른쪽에 낡은 집 한 채가 있는데, 울타리에 자주색 나팔꽃이 많이 심어져 있을게요.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 대문이 보일 게요.” 라고 하듯이 집집마다 울타리에 다양한 줄기 식물을 재배하여 다른 마을길과 구분을 시도하기도 한다. 아래의 대화는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주민을 찾아가는 도중에 한 마을 주민이 길안내를 해주는 대화 기록이다.



그림 4-50 울안공간에 있는 장물이 길의 경관형태에 영향을 주는 사진.(2013.8)

정창복(2013)씨에 따르면 조선족 마을은 주변 자연식생을 보유하는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문화의 특성은 한반도 전통문화의 고유의 자연관 환경조성 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4-51, 4-52와 같이 이는 한족 마을길의 경관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조선족마을은 주택지 내부에 건물을 배치하고 있고, 반면 한족마을은 주택지와 큰길이 연결되어 있는 외각부근에 건물을 짓는다. 이러한 주거문화의 차이로 인해 마을길 경관의 차이가 생성 되었다고 본다.



그림 4-51 조선족 마을길은 주변의 자연적인 식생으로 구성 된 경관(2013.7)



그림 4-52 한족 마을길은 건물외벽과 인위적으로 식생으로 구성 된 경관(2013.7)

박룡호(2013)씨에 따르면 주거문화의 차이로 인해 마을길의 거시적인 경관이 차이가 날뿐더러 마을길에 대한 내적인 의미체계 또한 차이가 있다. 조선족 마을길은 단순한 전이공간이 아니라 마을길 경관형태 차이에 따라 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마을주민 박씨네 가는 길과 김씨네 가는 길은 주변 경관이 차이가 있어서 식별이 가능하다. 한족 마을길은 주민의 내부적인 의미체계에서는 하나의 전이 모임공간이다. 왕홍예(王宏業)씨에 따르면 그림 4-53과 같이 그들은 평소에 한가한 시간 때에는 현관문 주변에 접이식 의자를 놓고 지나가는 마을주민들과 담소를 나눈다. 시간이 누적 되면서 그러한 지점에 모여드는 주민수가 늘어나 하나의 모임의 공간을 재구성 한다. 이러한 현상은 마을길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림 4-53 한족마을 길거리에서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사진 (2013.7)

V. 결 론

5.1 연구의 결론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은 공간구성 시 각자 다른 풍수이론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이론은 마을배치, 주택배치, 주택구조, 울안 및 내원 공간배치, 마을길 등 방면에서 선명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는 두 주거문화의 정체성 차이가 존재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증적 증거물이다.

연변지역은 중국 내 조선족 최대 집단주거지인 동시에 한족문화와 공존하고 있는 다문화 지역이다. 어느 한 문화를 빼놓고 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과정에서 많은 제한점을 초래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변지역의 마을의 주류 문화인 조선족마을문화와 한족마을문화를 동시에 연구하였다. 보다 정확한 장소의 정체성 이해를 위해 문화인류학적 접근 방법으로 참여관찰법, 인문지리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연변지역 마을문화 연구에서 조경관련 연구가 미약한 시점에서 조경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변지역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을 대상으로 장기간 답사를 통해 조선족마을인 창차이촌과 한족마을인 무이둥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여 내부적인 관점에서 관찰과 분석을 진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 모든 마을은 중국 사회문화 속에 존속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이 생성, 보존, 복원, 재개발 등 형성 과정에서 중국 정부정책에 의해 관리 되어왔다. 이러한 존속 관계는 마을의 경관조성에서 반영이 되었고 이는 중국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 주는 실증적 산물이다.

둘째, 유사한 공간이지만 조선족문화와 한족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공간구성 형태와 내부적인 의미가 현저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마을주민 :

조선족마을주민의 이민사와 한족마을주민의 이주사의 차이로 인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을주민 간 관계의 의미체계는 차이가 있었다. 조선족 주민은 ‘큰집’, ‘오씨 네 집’, ‘○○네 집’ 등으로 주민 간 의미체계가 구성이 되었고, 한족 주민은

‘노호(老戶)’, ‘○가(家)’, ‘○○가(家)’, ‘신호(新戶)’ 등으로 주민 간 의미체계가 구성이 되어있었다. 조선족주민은 이러한 의미체계에서 큰집의 의사를 존중하는 기초에서 지식 베이스가 다소 탄탄한 ○씨 네 집에 많이 의지하면서 마을을 구성해 나아갔다. 한족민은 평소에 노호(老戶)를 중요시해 왔으며 노호(老戶)가 대부분 ○가(家)로 구성되어 있었고 마을 내 주요한 역할인 노호(老戶)와 ○가(家)를 둘러싸여 마을 조성을 진행하였다. 한족의 특유한 사생활 보호의식으로 인해 주민 간 서로 많이 의지하는 현상보다는 개개인의 문화대로 생활하는 경향이 많았다.

전체적인 마을 배치 :

마을의 구체적인 배치에 있어서 조선족주거문화와 한족주거문화는 모두 각자 다른 풍수이론을 바탕으로 공간구성 진행하였다. 조선족주거문화는 ‘한반도 서민의 전통 주거문화’의 변형체로 양택풍수를 통해 마을입지선정, 주택입지선정, 농지입지선정을 하였다. 주민들 중 ‘○씨 네 집’과 같은 지식체계가 비교적 완전한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마을의 규모를 확장해 가면서 마을을 형성하였다. 한족주거문화는 중국 내 각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의 복합적인 풍수이론으로 마을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음양오행’론을 주요한 이론적 바탕으로 마을을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장소로 조성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이론은 풍수지리보다는 신봉사상을 반영되는 공간구성을 조성하였다.

주택 구조 :

동일한 생태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공간의 구성형태가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현재 조선족주택은 대부분 ‘통칸형’으로 지어졌으며, 그 내부에는 ‘정주간’, ‘웃방’, ‘창고’가 있었다. 한족의 주택은 ‘구(口)자(字) 대청형’일 경우 ‘당(堂)옥(屋)’, ‘동(東)옥(屋)’, ‘서(西)옥(屋)’으로 구성이 되었고, ‘일(日)자(字) 대청형’일 경우 ‘대(大)옥(屋)’, ‘소(小)옥(屋)’이 추가되는 공간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주민의 내부적인 의미체계로 인하여 각 공간마다 다양한 용도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들은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생성된 공간도 있는 반면,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기존의 공간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현상도 있었다. 비록 주택의 크기는 작지만 각 공간마다 사용하는 사람의 차이로 인해 사생활공간, 외부와 오픈된 공간, 소통의 공간, 모임의 공간 등 공간의 의미체계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반

드시 내부적인 시각에서 그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모든 사고를 진행하여야만 그들의 문화공간을 이해할 수 있다.

울안 및 내원 공간 :

울안 및 내원 공간은 주택건물 외에 울타리 내 모든 공간을 뜻 하는 용어이다. 비록 같은 유형의 공간이지만 문화의 차이로 인해 용어의 차이도 확연히 다르다. 그 뿐만 아니라 울타리 내 공간을 서로 부동한 형태로 구성 되어있다. 조선족마을은 울안 공간은 마당, 텃밭, 농지, 과수원 등으로 나누어진다. 반면 한족마을의 내원 공간은 ‘전원(前園)’, 농지, 창고 등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조선족주거문화는 한반도의 한옥문화의 일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당, 텃밭 등 공간은 고유의 한반도 전통문화와 이용형태가 유사하다. 최근 들어 조선족마을에서 조선족 인구가 줄어든 현황으로 인해 문화를 이어가는 신생명이 부족하여 현재 유지하고 있는 문화도 점차 동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 마을에서의 울안공간 내 모든 공간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이어져 있지만 각자 독립적인 의미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족주민들은 내원공간 조성 시 ‘합원’의 개념을 유지하고 있었다. 비록 거시적인 공간형태는 ‘합원’형태가 아니지만 합원을 다루는 고유의 이론으로 전원공간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원공간 내 모든 공간은 전원공간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있고 의미체계 또한 전원공간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있다. 두 문화 모두 고유의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보전과 복원 과정에서 이론적 자료가 미약하여 일부 지식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은 두 문화 모두 유사하다.

마을 길

마을 길 공간은 마을 배치로부터 따라온 두 문화의 차이점 때문에 경관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을길을 전이공간으로 이용한다는 점은 공동점이지만, 공간 속 내부적인 의미체계는 차이를 보여 주었다. 조선족 마을길은 마을길마다 경관의 차이를 통해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특유의 장소성 의미를 더하였고, 한족마을 마을길은 길거리에 한명씩 모여면서 하나의 교류공간을 형성하는 ‘모임이 시작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마을길의 형태 또한 차이가 많아서 마을길을 걷다보면 현재 머물러 있는 마을이 조선족마을인지 한족마을인

지를 판단할 수 있다. 마을길 생태환경은 각자 다른 풍수이론의 영향으로 인해 차이를 보였다. 조선족마을은 고유의 생태계환경을 존중하고 보존하려는 자연관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마을길 곳곳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생태계 환경이 많다. 이는 한반도 고유문화인 ‘누정원’문화에서 반영한 ‘자연을 존중하고, 친환경을 중요시한다’는 베이스 이론과 유사하였다. 반면 한족마을의 마을길은 ‘음양오행’론 풍수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마을 주변에 인위적인 식생이 조성 되어 있었고, 이러한 인위적인 식생은 내원 공간에서 주로 반영 되어 있었다.

연변지역은 중국 내 30개의 소수민족자치주 중 하나인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위치하여 있는 곳이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 3국이 인접해 있는 곳이다. 향후 연변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북3성 지역은 중국 정부의 지역개발 및 발전 정책으로 인하여 보다 활성화 된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시각에서 연변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참고 문헌의 제한으로 인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석사 학위 논문을 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의 제한으로 현재 보다 더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더 많은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방면에서 연변지역을 이해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성중. 2009. “디자인 연구방법으로서 문화인류학의 참여 관찰 연구.” 「한국디자인 문화학회지」 15(2): 1-10.
- 강위원. 2008. 「조선족의 문화를 찾아서」 서울: 역사공간: 13-82.
- 강홍빈 외. 2010. 「이태원 공간과 삶」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3-20.
- 구분규. 2013. “다문화주의와 초국적 이주민: 안산 원곡동 이주민 집주지역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9(2): 5-51.
- 김광익. 2010. “현대 중국농민의 일상세계: 공간구조와 관시(關係)의 확장.” 「비교문화연구」 16(1): 127-161.
- 김성균. 1993. “하회마을의 문화경관.” 「문화역사지리」 (5): 91-94.
- 김인학, 2003. 「연길 조선족 마을의 공간구성변화에 대한 연구: 용정시 장재촌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옥. 2012.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광장의 도시적 기능과 광장디자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봉. 2007. “조선족민가” 1-66
- 김일학, 박용환. 2010. “조선족 농촌주거 공간구성형태의 지역적 특징에 관한 연구: 중국 동북3성 각 지역의 조선족 농촌주거에 대한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농촌 계획학회지」 15(4): 75-87.
- 고동현. 2003. 「역사적 문화경관 보존계획에 관한 연구: 하회마을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대한건축학회. 2010. 「주거론」 서울: 기문당: 33-85.
- 문지영. 2012. 「조선시대 교량의 문화경관 해석: 연결, 교감, 상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규택, 하용삼, 변광석. 2010. “이질적 인식과 실천의 장으로서의 로컬, 부산 차이나타운: 상해거리, 축제, 화교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0(3): 87-100.
- 박동숙. 2010. 「다문화 가정의 정보요구 차이 분석을 통한 도서관서비스 방안: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를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용훈. 2008. 「전통마을의 경관보전에 관한 노상경관의 역할과 그 관리방안」 도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재영 역, James P. Spradley. 2006. 「참여관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정덕. 2003.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론.” 「서울행정학회 2003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창석, 유영한. 2001. “한국의 문화경관, 그 실체,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가치 평가.” 「한국생태학회지」 24(5): 323-332.
- 이희봉. 2005. “거주자 생활중심으로 본 경기 고양 전통민가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14(43): 53-77.
- 이영심, 최정신. 2007. “재한(在韓) 조선족(朝鮮族)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거 계획: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5(9): 15-26.
- 정하영. 2004. “중국의 ‘판시’문화에 대한 시론.” 「중국학연구」 27: 355-377.
- 진달(陳達), 1938. ‘南洋華僑与閩粵社會’. 商務印書館.
- 차한필. 2006. 「중국속에 일떠서는 한민족」 서울: 예문서원.
- 천현진, 이준, 강용, 김성균. 2012. “중국 이주민 거주지역 내 시장공간의 문화경관해석 : 서울시 대림동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0(5): 73-87.
- 천현진, 강용, 김성균. 2012b. “중국인 집단거주지 내 주택공간의 문화경관해석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을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17-120.
- 천현진, 이준, 강용, 김성균. 2011. 참여 관찰법을 이용한 중국인 상업 가로지역 공간의 문화인류학적 분석: 서울 대림동 중국인 집단거주지 내 상업 가로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03-106.
- 한국민족학회. 1995. 「문화론 하나」 서울: 문덕사.
- 한상복, 권태환. 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한국건축연구소, 1994.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 취락 및 주거에 관한 조사연구 : 장재촌” 「울산대학교 출판사」 17-156
- Kim, Sung-Kyun. 1988. *Winding River Village: Poetics of a Korean Landscape*. A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Web Site 자료

- 두산백과. “엔벤조선족자치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5681&cid=40942&categoryId=34031>

- 두산백과. “조계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1543&cid=40942&categoryId=31657>

- 두산백과. “한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1901&cid=40942&categoryId=31614>

- 두산백과. “해외이주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147&cid=40942&categoryId=31713>

- 한국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17479&cid=44412&categoryId=44412>

- 중국 百度百科-四合院

<http://baike.baidu.com/subview/13973/5081832.htm>

■ 부 록

대림동 중국인 거주지 주민

이 름	연 령	성 별	마 을	출 신	민 족(중국)
장창복	81	남	창차이촌	길림성	조선족
리상룡	56	남	창차이촌	길림성	조선족
리옥자	55	여	창차이촌	길림성	조선족
조정룡	56	남	창차이촌	길림성	조선족
송인자	54	여	창차이촌	길림성	조선족
현길룡	59	남	창차이촌	길림성	조선족
윤홍수	51	남	창차이촌	길림성	조선족
류길선	55	남	창차이촌	길림성	조선족
림성범	56	남	창차이촌	길림성	조선족
박룡호	84	남	창차이촌	길림성	조선족
리동춘	77	남	창차이촌	길림성	조선족
김동범	73	남	창차이촌	길림성	조선족
배희열	75	남	창차이촌	길림성	조선족
뤄 정 귀 (呂正國)	58	남	무이둥	길림성	한족
왕 댄 강 (王殿剛)	48	남	무이둥	길림성	한족
천 보 련 (陳寶蓮)	50	여	무이둥	길림성	한족
왕 홍 예 (王宏業)	52	남	무이둥	길림성	한족
왕 쑤 파 (王茂發)	75	남	무이둥	산둥성	한족
류 쟌 러 (劉建樂)	42	여	무이둥	길림성	한족

ABSTRACT

This thesis is an ethnographic study of analysis and comparison between traditional Korean-Chinese(중국 조선족) village and Han(한족) village. The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 of cultural landscape by interpreting the cultural landscape. Concentrating on commonality, difference and similarity of cultural landscape, this study analyzes traditional Korean-Chinese village and Han village.

In order to derive and analyze the various elements for spatial structure in target site (대상지),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patial arrangement from the internal of the village and related semantic point of view through anthropological research methods.

This study's analysis of cultural landscapes of Korean-Chinese village and Han village in traditional Yanbian Korean-Chinese Autonomous Prefecture has the following contributions: Firstly, to determine the physical and social factors that shape the cultural landscape of Korean-Chinese village and Han village; secondly, to identify and analyze semantic point based on the physical landscape pattern of the; thirdly, this study has gone through several phases which are literature review, research methods, data collecting and analysis of target site, and finally resulted in the interpretation form.

Comparing the various elements for spatial structure in the target site, study analyzed the cultural landscape of the Korean-Chinese village and Han Chinese villages. First, the Yanbian area is the biggest Korean-Chinese enclave as well as the multicultural coexistent area along with Chinese culture, and all subsist in Chinese society and culture. As such area is created, preserved, restored including the redevelopment, it has been managed by Chinese government policy. This relationship influences the current appearance of the village, and it reflects the contemporary changes in China. Second, even spaces used in similar applications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way the space is created and its internal meanings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Korean-Chinese culture and Chinese culture. The cause of the unequal spatial structure is that the base theory for space structure, Feng Shui, is unequal. The Feng Shui theory for Yanbian Korean-Chinese Autonomous Region is traditional Feng Shui theory for working class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the Feng Shui theory for Han

village in Yanbian area is into complex forms of Feng Shui theory of each region in mainland China. As a result of these Feng Shui theor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village.

Rather than simply leaving a cultural technology of analysis of Korean-Chinese village and Han village in Yanbian Korean-Chinese Autonomous Prefecture, this study would be a meaning basic data for preservation, restoration and development with modern science and civilization.

Keywords: Korean-Chinese village, Han village, Channngcai Village, Muyidong, housing culture, cultural landscape,

Student number: 2011-24106